



국가별 정보통신방송 현황 2016

ICT & Broadcasting

VIETNAM Market Report



CONTENTS

I. 베트남 정보통신방송 산업 동향

1. 정책 및 규제 기관
2. 정책 및 규제
3. 산업구조 및 특징
4. 산업 주요 이슈
5. 한국과의 협력 현황

II. 베트남 정보통신방송 품목 동향

1. 소프트웨어
2. 인터넷서비스
3. 통신
4. 디지털콘텐츠
5. 방송스마트미디어
6. 정보보호
7. 클라우드 컴퓨팅
8. 사물인터넷
9. IT스마트융합
10. 전파위성
11. 디바이스

III. 베트남 유망제품 진출전략

1. 유망품목 도출
2. 유망제품 선정
3. 유망제품 유통구조
4. 현지 진출 기업 사례
5. 유망제품 홍보 방법

I. 베트남 정보통신방송 산업 동향

1. 정책 및 규제 기관
2. 정책 및 규제
3. 산업구조 및 특징
4. 산업 주요 이슈
5. 한국과의 협력 현황



Overview

※ 주요 정보통신방송 기관

정보통신부(MIC)																																					
역할	- 베트남 정보통신부(MIC)는 2007년 8월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새롭게 출범했으며, 기존 우정통신부(MPT, Ministry of Post and Telematics)의 업무에 언론·방송·출판 분야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함 - 정보통신, 방송, 언론, 출판, 우정 산업에 대한 법규 제정 및 정책 수립과 산업 전략 등을 총괄함																																				
조직도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우정청</td> <td>법무청</td> <td>주파수관리청</td> <td>라디오·TV·전기정보관리청</td> </tr> <tr> <td>정보기술청</td> <td>조직인사청</td> <td>통신청</td> <td>외부정보청</td> </tr> <tr> <td>과학기술청</td> <td>정보통신사찰청</td> <td>정보기술청</td> <td>Ho Chi Minh 시 대표청</td> </tr> <tr> <td>계획재무청</td> <td>일반사무청</td> <td>저널리즘청</td> <td>Da nang 시 대표청</td> </tr> <tr> <td>국제협력청</td> <td></td> <td>출판청</td> <td></td> </tr> </table>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정보통신전략기관</td> <td>정보기술통신저널</td> <td>정보통신 훈련 및 매니징</td> <td>컴퓨터 긴급대응팀</td> </tr> <tr> <td>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td> <td>베트남 우편통신기구</td> <td>SW 및 디지털 콘텐츠</td> <td>베트남-한국 IT 협력팀</td> </tr> <tr> <td>정보센터</td> <td>국제통신협력 프레스센터</td> <td>공공통신서비스펀드</td> <td>프린팅산업협력팀</td> </tr> <tr> <td>온라인 신문 VietnamNet</td> <td>국제 스티어링 위원회</td> <td>ICT 프로젝트 운영 개발</td> <td></td> </tr> </table>	우정청	법무청	주파수관리청	라디오·TV·전기정보관리청	정보기술청	조직인사청	통신청	외부정보청	과학기술청	정보통신사찰청	정보기술청	Ho Chi Minh 시 대표청	계획재무청	일반사무청	저널리즘청	Da nang 시 대표청	국제협력청		출판청		정보통신전략기관	정보기술통신저널	정보통신 훈련 및 매니징	컴퓨터 긴급대응팀	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	베트남 우편통신기구	SW 및 디지털 콘텐츠	베트남-한국 IT 협력팀	정보센터	국제통신협력 프레스센터	공공통신서비스펀드	프린팅산업협력팀	온라인 신문 VietnamNet	국제 스티어링 위원회	ICT 프로젝트 운영 개발	
우정청	법무청	주파수관리청	라디오·TV·전기정보관리청																																		
정보기술청	조직인사청	통신청	외부정보청																																		
과학기술청	정보통신사찰청	정보기술청	Ho Chi Minh 시 대표청																																		
계획재무청	일반사무청	저널리즘청	Da nang 시 대표청																																		
국제협력청		출판청																																			
정보통신전략기관	정보기술통신저널	정보통신 훈련 및 매니징	컴퓨터 긴급대응팀																																		
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	베트남 우편통신기구	SW 및 디지털 콘텐츠	베트남-한국 IT 협력팀																																		
정보센터	국제통신협력 프레스센터	공공통신서비스펀드	프린팅산업협력팀																																		
온라인 신문 VietnamNet	국제 스티어링 위원회	ICT 프로젝트 운영 개발																																			

※ 정보통신방송 주요 정책

베트남 2010년 우정통신 발전 전략과 2020년 비전

- 국가 전체의 정보통신(ICT) 정책 및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산업화와 근대화, 국가 경제 인프라 구축을 촉진한다는 방침임
- 同 전략은 통신 부문, 정보기술 부문, 정보기술 애플리케이션 부문으로 나뉘 2010년까지의 중·단기 목표 및 2020년까지의 장기 목표를 명시함

2020년까지 통신 발전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

- 인터넷 보급률을 2015년까지 전 인구의 50% 이상 및 2020년까지 7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함. 또한 2015년까지 이동통신 보급률 90% 달성 및 2020년까지 보급률 95% 달성을 목표로 함
- 마스터플랜은 인프라와 통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3~4개의 기업 중심으로 통신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계획도 담고 있으며, VNPT와 Viettel Group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편을 요구함

2025년을 겨냥한 2020년까지의 IT 산업 발전계획

- Ho Chi Minh시 12구의 QTSC(Quang Trung Software City)와 9구의 SHTP(Saigon Hi-tech Park), Ho Chi Minh시 국가대학 IT파크, Hanoi시의 Hanoi IT 트레이딩 센터, 중부 Da Nang시의 ICT 인프라 개발센터, 남부 Can Tho시의 칸토대학교 소프트웨어센터 등 7곳의 IT 산업단지가 있으며, 2020년까지 19곳으로 늘릴 계획임

※ 한국과의 협력 현황

	정부	- 미래창조과학부, ‘K-ICT 전략’ 베트남서 성과 ... 5,000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2016.11)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베트남서 ‘Korea ICT Day 2016’ 개최(2016.11) - 교육부, 베트남에 ICT 활용한 첨단교실 개소(2015.10)
	기업	- 카카오, 베트남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활동 진행(2016.03) - 히든싱어’ 베트남 포맷 수출, 10월부터 현지 방송(2015.10) - KTH, 베트남 국영방송사 VTV와 콘텐츠 협력(2015.05) - STN, 베트남 국영방송과 스포츠·문화 콘텐츠 교류 MOU 체결(2015.04)

1. 정책 및 규제 기관

정보통신부(M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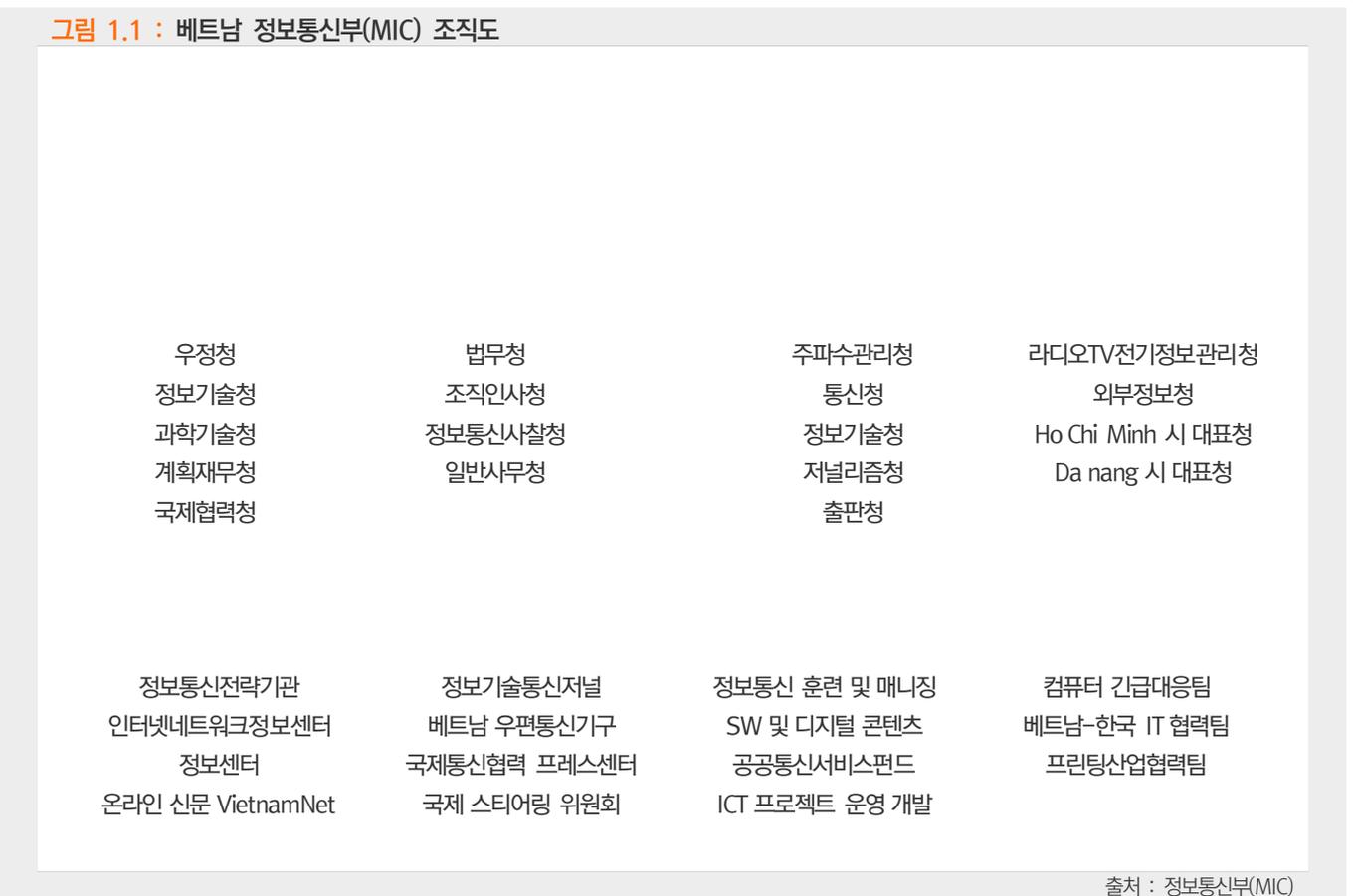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는 2007년 8월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새롭게 출범했으며, 기존 우정통신부(MPT, Ministry of Post and Telematics)의 업무에 언론·방송·출판 분야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함

1993년까지 우정통신청(DGPT, Department General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 of Vietnam)이 정보통신 부문을 담당한 유일한 기관이었으나, 1993년 우정통신청(DGPT)에서 우정통신공사(VNPT, Vietnam Post and Telecommunication Corporation)가 독립하면서 규제기관과 사업기관이 분리되었음. 2002년 11월 우정통신청(DGPT)이 우정통신부(MPT)로 개편됨

정보통신부는(MIC) 정보통신, 방송, 언론, 출판, 우정 산업에 대한 법규 제정 및 정책 수립과 산업 전략 등을 총괄함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장관 프로필		
성명	트롱 민 투안 (Truong Minh Tuan)	
직급	장관	
학력	정치학 박사	
주요 경력	2016.04 ~ 현재	정보통신부 장관
	2014.02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당비서
	2011.08	중앙 선전 부서 부위원장
	2006.03	공산당 이데올로기 위원회 상임위원
	2002.10	공산당 최고 집행위원회 위원

그림 1.1 :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조직도



통신청(VNTA, Viet Nam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베트남 통신청(VNTA, Viet Nam Telecommunications Authority)은 2011년 6월 27일, 베트남 총리 Nguyen Tan Dung에 의해 설립된 통신부문 자문 및 규제 담당기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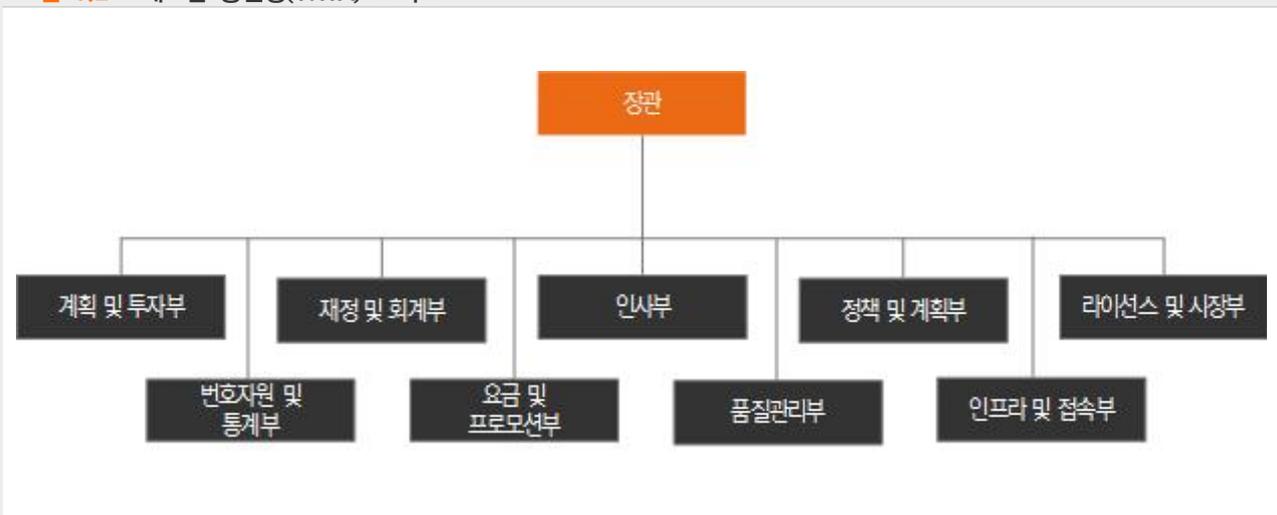
베트남 통신청(VNTA)은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와 정보통신 기술관리청(Author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Quality Control)의 합병으로 설립되었으며, 정보통신부(MIC) 산하에 소속됨

통신법, 무선 주파수법과 2011년 6월 6일에 공포한 정부 법령 25/2011/ND-CP에 의거하여 통신법 조항을 순조롭게 이행하며 지속 가능한 통신 시장을 육성하고 국내외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담당함

통신청(VNTA) 설립을 통해 통신 사업자와 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감독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통신 관세, 통신 서비스와 품질 조절, 통신 번호 할당 등에 관여함

또한 통신사 간 분쟁 해결 등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사업자 간 경쟁력을 강화시켜 비용을 낮추면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킴

그림 1.2 : 베트남 통신청(VNTA) 조직도



출처 : 베트남 통신청(VNTA)

2. 정책 및 규제

1) 정책

베트남 2010년 우정통신 발전 전략과 2020년 비전 (Vietnam's Posts an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Strategy until 2010 and Orientation until 2020)

2005년 Kahi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2010년 우정통신 발전 전략’을 승인했으며, 정보통신부(MIC)의 전신인 우정통신부(MPT)가 2007년 6월부터 공식 추진함

남부 경제개발지구를 국제 경제 및 금융, 무역의 허브로 육성하고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식 기반 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정보사회로의 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함

이에 국가 전체의 정보통신(ICT) 정책 및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산업화와 근대화, 국가 경제 인프라 구축을 촉진한다는 방침임

同 전략은 통신 부문, 정보기술 부문, 정보기술 애플리케이션 부문으로 나뉘며 2010년까지의 중·단기 목표 및 2020년까지의 장기 목표를 명시함

2013년 1월, 정보통신부(MIC) 장관인 Nguyen Bac Son은 ‘정보통신(ICT) 인적 자원 개발 계획 2011~2020’ 구현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설립하고, 정보통신(ICT)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힘

표 1.1 : 2010년 통신 서비스 보급률 목표

구분		유선전화 인구당 보급률(%)	이동전화 인구당 보급률(%)	인터넷 인구당 보급률(%)
베트남 전체 보급률	전국	22~24	48~52	40~45
지역별 보급률	Ba Ria-Vung Tau	21~23	30~33	40~45
	Binh Duong	25~27	54~57	35~40
	Binh Phuoc	11~13	16~18	13~15
	Dong Nai	20~22	48~51	30~36
	Long An	13~15	20~23	20~22
	Ho Chi Minh	29~32	74~78	65~70
	Tay Ninh	17~19	22~25	25~30
	Tien Giang	12~14	17~20	20~25

출처 : 정보통신부(MIC)

산업 부문별 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통신 부문의 세부 프로젝트는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지역 네트워크 확대, 광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구성됨

표 1.2 : 산업 부문별 목표 및 방향

구분		2010년	2020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ICT) 인프라를 전 국가적으로 확대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제공 - 201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0~25%를 유지하여 정보통신(ICT) 기반 시장 규모를 60~7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림 - 주요 대학 연구진의 정보통신(ICT) 기반 능력을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까지 전자정부, e-비즈니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e-Vietnam' 구축 및 정보통신 선진 국가 진입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정책과 함께 베트남 남부 주요 경제 도시의 집중적인 정보통신(ICT) 개발을 전개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
산업 부문별 방향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대역폭, 초고속, 양질의 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현대적 네트워크의 구축 - 2010년까지 전국 전화보급률 60% 이상, 도시지역 100% 달성 - 규제 완화를 통한 해외투자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 3G 및 4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 2020년까지 통신 서비스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정보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상용망 구축 - 정보기술 산업 매출액을 베트남 전체 산업 매출액의 10% 수준인 34억~37억 달러 규모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까지 정보기술 산업을 주요 산업 부문으로 성장시켜 베트남 산업화 및 현대화에 기여 - 2020년까지 정보기술 시장규모 비중을 전체 산업의 20% 수준으로 끌어올림
	정보기술 관련 애플리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 간 정보 교환과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 정부, 민간 기업, 개인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웹사이트와 정보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까지 남부 주요 경제 지역을 연결하는 대규모 정보 인프라 구축 완료 - 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정보통신 기술 개발 -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등을 포함한 'e-Vietnam' 구축

출처 : 정보통신부(MIC)

표 1.3 : 통신 부문 세부 프로젝트 및 목표

프로젝트명	목표	수행 주체
차세대 네트워크 개발	- 미래 통신 네트워크 구축 시 차세대 네트워크 구조에 기초해 실행	-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제공 기업
지역 네트워크 개발	- 보편적 통신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확대를 위해 지방도시와 시골 지역의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	
광 네트워크 구축	- 광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추진	
보편적 서비스(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지역에 통신 서비스 제공 - 도시-지방 간 정보 격차 해소 	-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제공 기업
보편적 서비스(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 확대 - 도시-지방 간 정보 격차 해소 	- 공공통신 서비스기금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 Fund)
이동통신 네트워크 개발	- 이동통신 커버리지 확대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제공 기업
해안지역 정보 네트워크 개발	- 해안지역 정보 교환 시스템, 정보 시스템, 정보 네트워크 개발 및 현대화	

출처 : 정보통신부(MIC)

정보기술 및 정보기술 애플리케이션 관련 세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표 1.4 : 정보기술 및 정보기술 애플리케이션 부문 세부 프로젝트 및 목표

프로젝트명	목표
Ho Chi Minh IT 개발 프로젝트	- 정보 및 통신 애플리케이션 개발 확대 및 지원 - Ho Chi Minh의 공공서비스 효율성 향상 추진
국가 정보 인프라 구축	- Ho Chi Minh에 국가 정보 인프라 구축
베트남 남부 IT 활용 촉진	- 남부 주요 경제 지역인 7개 주 정부의 정보기술 관련 애플리케이션 사용 확대(Ho Chi Minh 제외) - 도시의 산업화 및 현대화를 목표로 함
정보기술 시장 개발 지원	- 정보기술 산업의 개발 확대를 위한 연구와 교육 활성화 - 제조 분야와 R&D 간 협력 사업 지원 확대

출처 : 정보통신부(MIC)

IT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세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표 1.5 : IT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세부 프로젝트 및 목표

프로젝트명	목표
대학원/박사 후 과정의 IT 활용능력 개발	- 남부 경제개발 지역의 주요 대학 석사 및 박사 후 과정 생을 대상으로 하는 IT 활용능력 개발 교육 및 지원
IT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센터 설립	- IT 관련 시장 수요에 맞는 고급 IT인력 배출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설립 및 교육 강화
IT 관련 기초 과학 연구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건립	- ICT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기초 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초 연구 성과의 전환 연구 강화

출처 : 정보통신부(MIC)

2020년까지 통신 발전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National master plan on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to 2020)

2012년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통신 발전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National master plan on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to 2020)을 발표함

同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인터넷 보급률을 2015년까지 전 인구의 50% 이상 및 2020년까지 7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함. 또한 2015년까지 이동통신 보급률 90% 달성 및 2020년까지 보급률 95% 달성을 목표로 함

마스터플랜은 인프라와 통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3~4개의 기업 중심으로 통신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계획도 담고 있으며, VNPT와 Viettel Group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편을 요구함

2025년을 겨냥한 2020년까지의 IT 산업 발전계획(Master plan on IT development until 2020 with a vision toward 2025)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2014년 8월 ‘2025년을 겨냥한 2020년까지의 IT 산업 발전계획’ 초안을 작성 중이며, IT산업 특화 공업단지와 대학연구센터를 현행 7곳에서 19곳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Ho Chi Minh시 12구의 QTSC(Quang Trung Software City)와 9구의 SHTP(Saigon Hi-tech Park), Ho Chi Minh시 국가대학 IT파크, Hanoi시의 Hanoi IT 트레이딩 센터, 중부 Da Nang시의 ICT 인프라 개발센터, 남부 Can Tho시의 칸토대학교 소프트웨어센터 등 7곳의 IT 산업단지가 있으며, 2020년까지 19곳으로 늘릴 계획임

IT 산업단지에 포함되는 산업 부문은 콘텐츠 서비스,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역외 서비스, IT 인재 교육, 데이터센터, 부속 소프트웨어 개발, 국내용 IT 컨설팅 서비스 등 방대한 분야를 포괄함

2020년까지 라디오와 TV 전송 및 방송에 관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radio and television transmission and broadcasting through 2020)

베트남 정부는 2009년에 ‘2020년까지 라디오와 TV 전송 및 방송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5년 1월에는 마스터플랜을 수정하는 ‘Decision 01’을 발표함

해당 마스터플랜에서 정보통신부(MIC)는 위성을 통해 2015년까지 북미, 유럽과 아시아에 뉴스를 방송하고, 2020년까지 전 세계에 방송한다는 목표를 수립함

2020년까지 국영 TV 채널은 일간 20시간의 뉴스를 제작하고 라디오 채널은 하루 24시간 방송을 목표로 하며, 초반에는 외국어로 된 양질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적어도 하루 8시간 방송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베트남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한편, 2015년 3월 15일부터 공식 적용되는 ‘Decision 01’은 베트남의 방송 시장에 외국인 투자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분야 기업들의 참여를 허용한 것으로, 이전까지는 국영 기업이나 국가가 주요 지분을 보유한 기업만이 방송 시장 참여가 가능했음

이에 따라 전국적 규모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 방송 기업들의 등장 가능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 규제

(1) 정보통신(ICT) 규제

통신 규제

2002년 5월 민간대표회의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우편과 전기통신에 관한 상임위원 회령(Ordinance on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No 43/2002/PL-UBTVQH 10)을 통해 전기통신법과 무선주파수법이 발효됨

전기통신법에서는 통신 라이선스, 번호 계획, 인터넷 관련 자원, 기술 표준화 등의 내용이, 무선주파수법에는 무선주파수에 관한 계획, 배분, 무선 라이선스 부여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표 1.6 : 베트남의 통신 관련 주요 법규

구분	내용
Law of Telecommunications	- 전기통신법 - 2009년 11월 가결 - 통신 사업, 보편적 서비스 규정 - 설비와 구축뿐만 아니라 이용자 및 기업의 통신관련 권리와 의무를 규정
Law on Radio Frequencies	- 무선주파수법 - 2009년 11월 가결
Law on Information Technology	- 정보통신법 - 2006년 6월 가결 - IT 애플리케이션 이용과 개발활동에 관한 규정 - 개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출처 : 정보통신부(MIC)

통신법 및 무선주파수법 개정(2009)

베트남 의회는 2009년 7월부터 통신 시장에 대한 베트남 민간 기업 및 외국인 투자 범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신규 통신법에 대한 심의 절차를 시작하여 같은 해 11월 23일 통신법을 가결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이번 통신법 개정은 2007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함께 2012년까지 통신 시장을 전면 개방기로 한 데 따른 것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특히 외국 기업의 통신분야 투자 제한 해소와 주요 통신 기업의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분야의 규제완화가 진행 중임

외국 기업은 지난 2005년까지 자산을 보유할 수 없는 사업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s, BCC) 형태의 투자만 가능했으며, 중장기 투자 혹은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 조인트벤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었음

개정된 통신법에서는 개인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허용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투자자에 대한 점진적인 통신 시장 개방 방침을 분명히 함

통신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주파수, 전화번호, 도메인네임, 인터넷주소 등의 통신자원 할당 방식에 있어서도 경매 혹은 자격심사 방식 등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함

외국투자자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중앙 및 개별 지방 정부에 투자기업 등록을 여러 차례 해야 했던 것에 비해, 향후에는 법률에 의거, 기업 등록 수속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투자등록증을 변경하고 통신사업권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함

표 1.7 : 베트남 통신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야	기존	개선안
통신 인프라 구축	- 정부 및 국영기업만 가능	- 개인기업 포함 모든 기업 통신 인프라 구축 허용
외국 투자자 투자범위	- 투자수익 확보만 가능한 BCC 형태에 국한되며, 외국 기업은 자산 취득 불가	- 통신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해, 조인트 벤처 및 기업 경영과 소유가 가능토록 함
통신자원관리	- 정부 주도	- 시장 주도의 통신자원관리 촉진
통신자원 할당 방식	- 불투명한 라이선스 할당 방식	- 주파수, 전화번호, 도메인, IP 주소 등의 통신자원 경매 시, 자격심사 및 경매 방식 적용
기업등록 절차	- 중앙/지방정부에 개별 등록	- 기업등록 절차만으로 프로세스 단일화

출처 : 정보통신부(MIC)

기술 규제

전파총국(RFD, Radio Frequency Directorate)은 산하에 기술 센터를 설치하고, 무선기기의 기준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전파총국(RFD)은 무선주파수 법에 기반하여 무선기지국 라이선스 및 기술 기준에 따라 무선기기 적합성 검사 및 전자파 적합성(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검사를 실시함

무선기기의 장애 여부 및 무선기기가 주변 환경에 대한 전자파 장애의 허용 범위를 준수하면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함

경쟁 촉진

베트남 정부는 1995년 규제 완화 이후, 다양한 경쟁촉진 정책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도모함

이동통신시장 내 요금 경쟁이 진행됨에 따라, 정보통신부(MIC)는 2007년 7월 이동통신에 관한 요금 규제를 인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재편함. 이에 따라 휴대 전화 통화 요금이 1분당 5,000동(약 25센트) 수준으로 낮아짐

정보통신부(MIC)는 이동통신사의 패키지 상품과 프로모션 상품에 엄격한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2012년 초반부터 실행 예정인 이 규제 법안은 베트남의 이동통신사들로 인해 과열되어 있는 판촉행위를 자제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법안이 실행될 경우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선불카드 금액의 50% 범위 내로 제한함

정보통신부(MIC)는 베트남 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번호이동성제(MNP, Mobile number portability) 지침을 마련해 2011년 연말 시행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2012년 5월, 번호 이동성제도의 도입을 2014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힘

2014년 6월 베트남 총리실은 통신시장 개편안을 승인하고 국영 이동통신 사업자 Mobifone에 대한 민영화 작업을 시작하여, 2014년 12월 자본금 15조동(약 6억 8,100만 달러)의 자본금 100%를 정부가 소유하는 형태의 MobiFone Corporation을 설립하고 현재 주식 매각을 추진 중임

이동통신 업계 라이벌인 Vinaphone도 현재 기업공개를 준비 중으로, 이번 개편에 따라 3대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약 93%를 장악하고 있는 베트남 이동통신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됨

보편적 서비스

2004년 11월,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공용 전기통신 서비스 기금(VTF, Vietnam Public Utility Telecommunications Service Fund)에 관한 결정’이 공표됨

기금 설립에 필요한 자금 5,000억 동(약 2,540만 달러)은 국가 예산에서 2/5가 지원되었으며, 나머지는 사업자들에게 부담됨. 사업자의 자금 부담 비율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접속료를 제외한 매출액의 5%, 해외 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4%, 장거리 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3%로 정해짐

기금 관리는 정보통신부(MIC) 장관이 지명한 5명의 이사를 포함해 비정부기구(NGO) 공용 전기통신 서비스 기금이 담당함

주파수 라이선스 발급

2015년 10월, 베트남 정보통신부(MIC)는 2016년부터 시범 단계로 통신 사업자들에게 4G 서비스 출시를 허용할 것이며, 1년간의 시범 서비스 기간을 거쳐 3개 지역에 제한적으로 4G 서비스를 출시한 뒤 2017년부터 공식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힘

4G 주파수 라이선스 발급 연기 이유로는 베트남에 3G 서비스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베트남 경제 악화로 인한 소비 감소, 4G 단말에 대한 높은 투자금, 할당된 4G 주파수의 적합성 등의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어 4G 서비스를 조기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임

4G 라이선스 발급은 ‘국가 통신 개발 계획 2020(National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Plan 2020)’의 일환으로 논의되어 왔음

한편, 정보통신부(MIC)는 2014년 3월 가입자 수 감소를 이유로 S-Fone과 EVN Telecom에 대한 주파수 사용권을 취소했음

450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온 EVN Telecom은 2012년 Viettel에 인수된 바 있으며, SK텔레콤과 베트남 SPT의 조인트 벤처로 설립된 S-Fone은 850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왔으나 SK텔레콤이 투자를 중단한 이래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서 가입자 수가 급락했음

SIM카드 보유 개수 제한

2012년 3월 19일, 베트남 정보통신부(MIC)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SIM 카드 남발과 잦은 사업자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보유 가능한 SIM 카드의 개수를 한 사업자당 3개로 제한함

이에 따라 베트남에 Viettel, VinaPhone MobiFone, S-Fone, Vietnamobile, Beeline 등 6개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1인당 총 18개의 SIM 카드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의 경우 한 사업자 당 100개의 SIM 카드를 보유할 수 있음

베트남에서는 개인정보 등록이 필요 없는 선불요금제를 악용해 SIM 카드를 저렴한 가격에 재판매하는 등의 SIM 카드 관련 암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

또한 무분별한 SIM 카드 등록에 미사용 중인 카드가 넘쳐나고, 이에 따라 발생한 베트남의 이동통신 번호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MIC)는 SIM 카드 보유 개수를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분석됨

(2) 방송 규제

방송 규제

베트남의 방송 시장은 따로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 행정 명령에 의해서 규제가 실시되고 있음

베트남 방송 시장은 엄격하게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운데, 국가가 인정하는 전파 수신만 가능하며, 정부 및 공산당은 언론법에 의거하여 직접 프로그램을 검열함

언론법

베트남 언론법에서는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고 국가 전통을 보전하며 사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베트남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데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고 보고 모든 언론기관과 언론인의 당 정책 충실의무를 명시함

언론을 정부와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지침을 대변하는 수단이자 정책을 수행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기구로 간주함

광고법

베트남의 광고법은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통제적 요소가 강한데, 광고 시간과 광고 횟수 측면에서 제한을 가함

특히, 뉴스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시작 음악이나 제목이 나간 직후에 바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 기업이 대대적인 광고 공세로 베트남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매체에 대한 광고주의 영향을 제한하려는 조치임

TV 및 라디오 광고는 10분 또는 프로그램 길이의 5%로 제한되며, TV영화 프로그램의 경우 방영 도중 2회 이상 중간 광고를 넣을 수 없고 매회 5분을 초과할 수 없음

광고횟수는 라디오에서는 특정 광고가 하루 10회 이상, TV에서는 하루 5회 이상 방송될 수 없고, 또 동일 광고의 연속 방영 횟수도 제한해, TV와 라디오 모두 특정 광고가 8일 이상 연속해서 나갈 수 없도록 제한함

해외 콘텐츠 수입 및 외자 유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2006년 7월 1일 시행된 ‘공통 투자법 및 가이드 라인’에 의해 베트남 방송시장으로의 해외 기업 조건부 투자가 허가됨에 따라, 외국 TV 프로그램을 베트남에서 유통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수입허가가 필요함

과거에는 해외 방송사업자들의 베트남 해외 방송 프로그램 방영에 지리적 접근성 및 언어 장애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민간 유통기업이 설립돼 프로그램 배급 역할을 담당함

해외 프로그램 수입은 크게 방송국에 의한 직접 수입과 유통기업에 의한 간접 수입으로 구분함

유통기업 역시 해외 프로그램의 판권을 구입해 베트남 방송국에 재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임

2005년 이전에는 VTV만이 해외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각 지역 방송국과 통신사도 구입할 수 있음

해외 콘텐츠 및 외국인 투자 관련 조항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문화 분야에 대한 보호주의적 시각을 읽을 수 있음

문화 관련 산업은 ‘조건부 투자 분야’와 ‘투자 금지 분야’에 속하는데 특히 문화와 출판,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언론 관련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총리가 직접 결정권을 갖도록 할 만큼 강력히 제한하고 있음

위성방송 수신 규제

1996년 11월, 베트남 정부는 외국의 위성방송 수신에 관련된 법령을 발표해 개인의 외국 위성방송 수신을 금지시킴

외국의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것은 공산당 간부와 정부 고위 관료, 정부 기관, 국영 미디어, 국제 보도기관, 외교관, 외국인용 비즈니스 호텔 등으로 수신범위를 제한함

2002년 6월부터는 총리의 지시에 따라 위성방송의 수신기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통상청(Ministry of Trade)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위성방송 수신 규제가 한층 엄격해짐

디지털 방송 전환 계획

2012년 3월,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힘

베트남 정부는 이번 계획의 첫 단계로 2015년까지 베트남 TV 보유가구의 약 80%가 디지털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100%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베트남 정부는 당초 Hanoi와 Ho Chi Minh 시에서 디지털 방송 송출을 계획했으나 한국 추진모델을 도입해 2013년 10월 인구 100만 명 규모인 Da Nang에서 첫 디지털 방송을 송출해 2015년 말까지 아날로그 방송 중단을 목표로 하고 있음

Hanoi, Ho Chi Minh, Hai Phong, Can Tho 등 4개 대도시도 현재 디지털 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요 방송사들이 장비와 솔루션을 도입 중이며, 지상파 디지털 방송 규격은 권역 내 단일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식인 DVB-T2로 확정함

표 1.8 : 베트남 디지털 방송 전환 4단계 전략

단계	기간	지역
1단계 (5대 도시)	2015~2016	- Hanoi, Ho Chi Minh City, Hai Pong, DaNang, Can Tho
2단계 (26개 성)	2013~2016	- Hanoi(시외), Vin Phuc, Bac Ninh, Hai Duong, Hung Yen, Quang Ninh, Thai Nguyen, Thai Binh, Ha Nam, Nam Dinh, Ninh Binh, Bac Giang, Phu Tho, Khanh Hoa, Binh Thuan, Ninh Thuan, Binh Duong, Dong Nai, Ba Ria Vung Tau, Long An, Tien Giang, Ben Tre, Vinh Long, Dong Thap, An Giang, Hau Giang
3단계 (18개 성)	2015~2018	- Thanh Hoa, Nghe An, Ha Tinh, Quang Binh, Quang Tri, Thua Thien-Hue, Quang Nam, Quang Ngai, Binh Dinh, Phu Yen, Lam Dong, Binh Phuoc, Tay Ninh, Tra Vinh, Soc Trang, Bac Lieu, Ca Mau, Kien Giang
4단계 (15개 성)	2017~2020	- Ha Giang, Cao Bang, Bac Kan, Tuyen Quang, Lao Cai, Yen Bai, Lang Son, Dien Bien, Lai Chau, Son La, Hoa Binh, Kon Tum, Gia Lai, Dak Lak, Dak Nong

출처 : 베트남 총리실

3. 산업구조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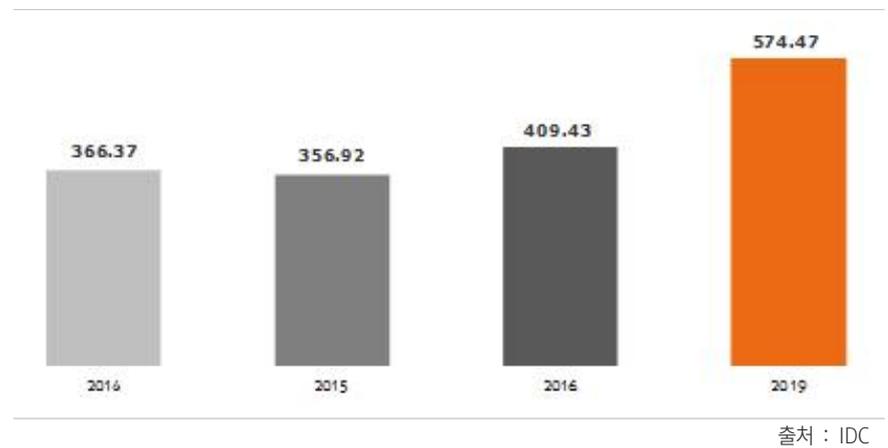
2016년 베트남 IT 서비스 시장 규모 약 4억 943만 달러 전망

미국 ICT 컨설팅 업체 IDC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베트남의 IT 서비스 시장 규모는 3억 6,637만 달러에 이르렀고, 이듬해에는 다소 감소하여 3억 5,692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IT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6년 말까지 약 4억 943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12.64%의 연평균 성장률로 2019년에 이르러서는 5억 7,447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그림 1.3 : 베트남 IT 서비스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지역별로 차이가 큰 ICT 인프라 현황

베트남은 빠른 산업화·도시화를 겪으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도시로 밀집됨에 따라 통신 인프라가 갖춰진 현대적 도시들이 생겨남

그러나 산간 지역에 위치한 일부 마을은 여전히 IT 발달이 더딘 편이며, 인터넷 및 전화 통신망 구축 상태 또한 매우 열악함

일각에서는 지방의 열악한 ICT 인프라 현황을 ICT 산업 성장 잠재력이 큰 기회의 장으로 보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4. 산업 주요 이슈

베트남의 ICT 마스터플랜

2011년 승인된 베트남 ICT 마스터플랜은 베트남이 2020년까지 ICT 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을 목표로 함

베트남은 2020년까지 IT 산업 종사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며, 전체 가구 수의 50~60%가 컴퓨터와 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인터넷 사용자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며, ICT 산업이 국가 GDP의 8~10% 수준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이로써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55개국 중 순위권 안에 진입할 것을 목표로 함

베트남 기업 및 금융기관, ICT 지출 규모 확대 추세

미국 ICT 컨설팅 업체 IDC에 따르면, 2016년 인프라 서비스 업체의 52.4%는 4G 및 브로드밴드에 대한 지출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금융기관의 60%가 ERP, CRM, 모바일뱅킹을 위한 지출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응답함

베트남 e-Payment 시장 지속적인 성장세

베트남 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e-Payment 시장도 덩달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임. 시장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2016년 베트남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460만 명으로 예측되었으며, 2019년에 이르러서는 3,5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시장조사기관 Euromonitor에 의하면, 2015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e-Payment를 이용한 결제 건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하여 약 2억 건을 기록함. 이는 전체 결제 수단의 5%에 해당하는 수준임

2015년 한 해에만 16개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신규 e-Payment 기업으로 베트남 중앙은행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각기 다른 서비스를 베트남 소비자에게 선보임

베트남 중앙은행에 따르면, e-Payment에 관한 사용자의 보안 인식 증가가 e-Payment 시장의 주요 성장 요인이 됨. 그러나 온라인쇼핑몰, 엔터테인먼트 등 특정 분야에만 e-Payment가 활성화되어있다는 한계가 있음

5. 한국과의 협력 현황

1) 정부 간 협력

미래창조과학부, 'K-ICT 전략' 베트남서 성과, 5,000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2016.11)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K-ICT 전략'의 일환으로 베트남 정부와 ICT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베트남 정보통신정책 협력강화 세미나 및 로드쇼'에 참석함

정보통신·방송 로드쇼에서 1,050만 불 규모의 스마트 시티 구축 계약과 4,000만 불 규모의 태양광 사물인터넷 솔루션 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향후 베트남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됨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베트남서 'Korea ICT Day 2016' 개최 (2016.1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2016년 11월 10일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 서 '베트남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핀테크 및 관련 솔루션'을 주제로 Korea ICT Day 2016을 개최함

교육부, 베트남에 ICT 활용한 첨단교실 개소(2015.10)

교육부는 29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끼우 지아이 고등학교(Cau Giay High School)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을 구축함

응유엔 빈 히엔(Nguyen Vinh Hien) 베트남 교육훈련부 차관은 첨단교실 구축 지원을 계기로 향후 베트남의 e-Learning 분야가 크게 발전할 것이며 한국-베트남 간 교육정보화 분야의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함

미래창조과학부,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ICT 협력 MOU 체결 (2015.07)

미래창조과학부는 7월 3일 베트남 정보통신부(MIC)와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함

양국은 기존 인터넷과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신성장 분야의 정보공유는 물론 상호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전문인력 교류 및 관련행사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음

문화체육관광부, '2015 한국-베트남 저작권 협력 세미나' 개최 (2015.04)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베트남 저작권 협력 세미나'가 2015년 4월 16일 베트남 Hanoi에서 개최함

이번 세미나에는 양국 정부 및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들과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저작권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함

강원정보문화진흥원, '한국-베트남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 (2014.10)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베트남 한국문화원과 제1회 '한국-베트남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베트남 애니메이션 컴퍼니와 한국-베트남 간 창작 콘텐츠 교류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

한국-베트남, 방송통신 협력 확대 합의(2014.07)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월 Hanoi에서 부 득 담 부총리와 응웬 박 정보통신부 장관 등 베트남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교육방송 모델 전수 등 다각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한-베트남 정보보호포럼 2014' 개최 (2014.06)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는 베트남 Hanoi에서 '한-베트남 정보보호포럼 2014 및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으며, 한국 참가기업과 현지 정보보호 기업, 유관기업, 정부부처 담당자 등이 참석해 베트남 ICT 사업 진출 전략과 베트남 정보보호산업 현황 등을 발표함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베트남 정보통신소프트웨어협회와 MOU 체결(2013.1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베트남 정보통신소프트웨어협회(VINASA)와 '한-베 민간단체 간 교류협력 체결 구축을 위한 MOU'를 교환함

이번 MOU 교환으로 양국의 SW 시장정보와 기술교류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양국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등도 개최될 전망이다

VINASA는 2002년 4월 설립되어 베트남 SW 및 SI 기업의 70%(260여 개)를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베트남 정보통신소프트웨어협회와 정보통신 협력 MOU(2013.09)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베트남 정보통신소프트웨어협회(VINASA)와 정보통신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교환하고, 아세안(ASEAN) 지역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 동반 진출에 나서기로 협의함

한국저작권위원회, 베트남에서 '저작권기술 국제교류회 개최 (2013.05)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베트남 방송, 통신, 포털 등 관련기업 3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 기술'을 주제로 하는 교류회를 통해 국내 저작권 기술 및 우수 콘텐츠를 소개하고 한-베트남 간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권 관련 현황 공유를 통해 향후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임

행정안전부(MOPAS), 베트남 정보통신부(MIC)와 공동으로 11월 21일 Hanoi에서 한·베트남 수교 20주년 기념 정보화 협력 포럼을 개최(2012.11)

포럼에서 국세청·특허청·조달청·소방방재청 등 관계자들이 한국 전자정부 우수사례를 소개하였으며, 국내 IT기업도 신기술을 알림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KCC) 위원장, NGUYEN BAC SON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장관과 회담(2012.06)

2012년 6월 28일,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KCC) 위원장과 NGUYEN BAC SON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장관이 양자회담을 갖고 방송통신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

행정안전부(MOPA)는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장관 Nguyen Bac Son을 접견, 양국 간 정보화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2012.06)

상기 논의에는 국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 인력양성, 인터넷 보급 확대 등이 포함됨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KCC) 상임위원, 베트남과 정보보호 협력 강화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2012.02)

베트남 정보통신부(MIC)와 베트남 컴퓨터침해대응센터(VNCERT)를 방문, 양국 간 정보보호와 침해대응분야 등 협력방안을 논의함

이명박 대통령과 방한한 베트남 주석 Truong Tan Sang과 정상회담(2011.11)

정보기술 개발 및 응용, 전자정부 등 정보통신 분야 협력 확대하기로 함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14명 실무자급(부서장급) 방문단 한국 방문(2011.11)

한국전자정부 수출의 일환으로 베트남의 정보통신부 방문단이 2011년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한국 IT공공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및 서울시청, 서울대와 현대정보기술 방문함

베트남은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을 롤모델로 전자정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베트남 Da Nang 전자정부를 시작으로 Hanoi와 Ho Chi Minh로 확대 적용할 예정임

홍성규 방송통신위원회(KCC) 부위원장,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차관 Thanh Hung Nguyen과 접견하고 양국 간 ICT 분야 협력방안 논의(2011.05)

홍 부위원장은 ICT 분야에 있어 와이브로 및 LTE 등 4세대 이동통신, 지상파 DMB, 방송콘텐츠 등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함

이에 베트남 차관은 한국의 발전된 방송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양국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함

한국의 정보통신부가 베트남 Hanoi에서 국제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교육 훈련 센터를 개소함(2003.11)

베트남 하노이시에 국제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교육 훈련 센터가 5일 문을 열었음

베트남 인터넷교육훈련센터는 컴퓨터교육장, 인터넷플라자, 세미나실, 사무실 등을 갖춘 다목적 정보접근시설로서, 55대의 최신형 컴퓨터를 비롯, 빔 프로젝터, 전동스크린, 음향시스템 등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최신 장비를 갖추

2) 기업 진출 및 협력

카카오, 베트남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활동 진행(2016.03)

카카오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팀이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숭손 장애인학교에서 8박 9일간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를 함

카카오는 2015년부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베트남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공익영역의 ICT 역량 강화에 힘씀

‘히든싱어’ 베트남 포맷 수출, 10월부터 현지 방송(2015.10)

JTBC는 베트남에 ‘히든싱어’ 포맷을 판매,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의 최대 지상파 방송 채널인 THVL1(가시청 가구 수: 약 2,500만)에서 10월 11일부터 방송된다고 밝힘

KTH, 베트남 국영방송사 VTV와 콘텐츠 협력(2015.05)

KTH가 베트남 국영 방송사인 VTV와 ICT 기반 콘텐츠 및 커머스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힘

양사는 앞으로 KTH가 보유한 ICT 기반 콘텐츠 및 커머스 사업과 VTV의 뉴미디어 사업 교류를 통해 베트남의 디지털 TV 시대에 대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로 함

STN, 베트남 국영방송과 스포츠·문화 콘텐츠 교류 MOU 체결(2015.04)

스포츠 전문 중계·보도 채널 STN이 베트남 국영 방송 NETVIET(VTC10과 스포츠·문화 콘텐츠 상호교류 및 한국어 보급 양해각서를 체결했음

STN은 자체 제작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및 K-팝 프로그램과 VTC10의 프로그램을 상호 교환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업무 협력관계를 확대하기로 했음

PC 온라인게임 파이널 블렛, VTC Online과 제휴해 베트남 진출(2014.12)

지플러스게임즈는 VTC Online과 PC 온라인 FPS 게임 <파이널 블렛>의 베트남 배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VTC Online은 베트남 최대의 온라인 게임 전문 배급사로, 2015년 상반기 중 베트남에서 해당 게임의 공개 시범 테스트 및 상용 서비스 예정임

CJ E&M, 국내 최초 베트남 현지 방송 콘텐츠 제작 합작법인 설립 (2014.11)

CJ E&M은 VTV와 방송 콘텐츠 제작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베트남에 양사 제작인력이 참여하는 방송 콘텐츠 제작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합작법인은 드라마·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제작한 프로그램들 VTV를 통해 베트남 전역에 방송하기로 합의했음

KT, 베트남에 영어교육 콘텐츠 수출(2014.11)

KT가 베트남 1위 통신사 비에텔 텔레콤(Viettel Telecom)과 어린이 영어 교육 콘텐츠인 ‘키즈톡톡(Kids Talk Talk)’ 공급 계약을 체결했음

‘키즈톡톡’은 KT그룹 미디어 계열사 KT스카이라이프가 판권을 소유한 어린이용 영어 교육 콘텐츠로, 총 35개 프로그램과 1061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며, 베트남에서 모바일·웹·IPTV를 통해 제공함

KT, 베트남에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ADSL)을 개통하고 베트남 지역 주민을 위한 초등학교를 건립해 준공식을 가짐(2013.01)

베트남 최초로 북부 3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ADSL) 3,100회선을 개통함

LG-Nortel, 베트남 CBD와 조인트벤처를 구성하여 NGN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2007년 5월에는 DSL 브로드밴드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사업을 수주함(2006.10)

LG-노텔은 미래 베트남 통신망의 중심이 될 NGN(Next Generation Network)망의 주요 장비인 액세스 게이트웨이를 최초로 공급하여 향후 베트남 통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음

LG-노텔 이재령 대표는 "베트남은 차세대 통신시장에 있어서의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이며, 양사가 그간 지속해왔던 긴밀한 교류관계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며, 동남아 전역으로 영역을 넓혀 나가는 등, 글로벌 마케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힘

II. 베트남 정보통신방송 품목 동향

1. 소프트웨어
2. 인터넷서비스
3. 통신
4. 디지털콘텐츠
5. 방송스마트미디어
6. 정보보호
7. 클라우드 컴퓨팅
8. 사물인터넷
9. IT스마트융합
10. 전파위성
11. 디바이스



Overview

※ 2015년 베트남 정보통신방송 주요지표 (단위: 천 명 / 천 회선 / 천 가구, 2015년 기준)

지표	베트남	보급률(%)	한국	보급률(%)
유선통신 가입회선	5,900	6.32%	28,882	58.06%
이동통신 가입자	122,000	130.64%	58,935	118.46%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7,600	8.14%	20,024	40.25%
TV 보급대수	22,318	92.00%	18,237	97.50%
케이블 TV 가입가구	4,575	18.86%	7,293	38.99%
위성 TV 가입가구	1,228	5.06%	2,008	10.74%
지상파 디지털 방송 가입가구	11,940	49.22%	18,144	97.00%
IPTV 가입가구	2,120	8.74%	8,845	47.29%

※ 각 항목별 보급률은 인구 대비 기준

출처: ITU, Digital TV Research(2016)

※ 베트남 정보통신방송 품목 동향

 소프트웨어	시장 동향 - 베트남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 2015' 2억 6,625만 달러 → 2019' 4억 384만 달러(▲ 10.98%) - 베트남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비율 • 2013' 81% → 2015' 78%(▼ 3%p)
	주요 사업자 - FPT Software: 베트남 IT 기업 TOP 40 중 1위 차지 - Orient Software: 베트남 ICT 기업 TOP 50 선발
 인터넷서비스	시장 동향 - 베트남 인터넷 이용자 수 • 2016' 4,820만 명 → 2021' 6,570만 명
	주요 사업자 - Coc Coc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의 지위를 위협할 수준으로 성장 - 페이스북: 2016' 베트남 내 사용자 수 3,470만 명 기록
 통신	시장 동향 - 베트남 이동통신 가입자 수: 2015' 1억 4,300만 명 - 베트남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2015' 760만 명
	주요 사업자 - VNPT: 2017년 4G 네트워크 확대 노력에 박차 - Viettel: 4G 기지국 확대
 디지털콘텐츠	시장 동향 - 베트남 디지털콘텐츠 시장 규모: 2017' 17억 1,440만 달러 전망 - 베트남 게임 시장 규모: 2016' 5억 3,540만 달러
	주요 사업자 - Apple: 베트남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Apple Music' 출시 - VNG: 미안마서 메시징 플랫폼 Zalo 이용자 수 200만 돌파
 방송스마트미디어	시장 동향 - 베트남 TV 보유 가구 수: 2015' 2,231만 8,000가구(▲ 1.1%) - 2015' 베트남 온라인 비디오 시청자 中 스마트폰 이용자 23% 차지
	주요 사업자 - TalkTV: 베트남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 선도 - VTV: 라이브 OTT 서비스를 위해 Harmonic사의 비디오 인프라 사용

Overview

※ 베트남 정보통신방송 품목 동향

 정보보호	시장 동향 - 베트남, 멀웨어 감염 비중 세계 1위 - PC 사용자의 39.95%, 멀웨어 감염 노출 - 베트남 정부, 데이터 보호 법률 수준 강화
	주요 사업자 - BKAV: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2년 연속 베트남인이 선호하는 제품 TOP 10 달성 - Athena: 사이버 보안 업체인 Athena는 'Ba Team'이라는 베트남 해커 집단에 공격당함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동향 - 베트남,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수준 미약 - 베트남, 2015 클라우드 컴퓨팅 순위 24개국 중 최하위
	주요 사업자 - FPT: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도입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IBM: 베트남에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설립
 사물인터넷	시장 동향 - 베트남 스마트홈 시장 규모 • 2017' 2,200만 달러 → 2021' 6,500만 달러(▲ 30.4%) - 베트남 정부, 2020년까지 ICT 분야에 1억 1,160만 달러 투자 발표
	주요 사업자 - PHA Distribution: 어류 양식장에 IoT 기술 도입 - Honeywell: 베트남에 스마트 홈 솔루션 도입
 IT스마트융합	시장 동향 - 인공지능: 태동 단계에 있는 시장으로 인공지능 기술뿐만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 3D 프린팅: 3D 프린터는 자국 생산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함 - 베트남 전자상거래 매출액: 2015' 40억 7,000만 달러
	주요 사업자 - Hoa Phat Furniture: 가구 생산에 3D 프린팅 기술 이용 - M_Services JSC: 모바일 결제시스템 서비스 개발 부문에 외국 자본 투자 유치
 전파위성	시장 동향 - 베트남 정보통신부, 주파수 관리 역할 담당 - VINASAT-1,2 2개의 통신위성 발사 및 운영 중 - 베트남, 2022년까지 4개의 추가 인공위성 발사 계획
	주요 사업자 - Viettel: 베트남 최초로 4G 서비스 시험사업 착수
 디바이스	시장 동향 - 베트남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규모: 2017' 4,000만 달러 전망 - 베트남 성인 인구 중 모바일 폰 보유 비중 93%, 스마트폰 55%
	주요 사업자 - 삼성: 2016'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32%) 1위 기록 - Mobiistar: 화웨이, 오포, 비보 등 중국 저가 브랜드와 경쟁

1. 소프트웨어

1) 시장 동향 및 전망

2015년 베트남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2억 6,625만 달러 달성

미국 컨설팅 업체 IDC에 따르면, 2015년 베트남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2억 6,625만 달러이며, 10.98%의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하여 2019년에 이르러서는 4억 384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베트남은 신흥 소프트웨어 시장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시스템 인프라 소프트웨어(System Infrastructure Software)’ 분야가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특히 시스템 인프라 소프트웨어 중 보안 소프트웨어 분야는 향후 5년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비율 78%

소프트웨어연합(BSA)이 2년마다 발표하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베트남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비율은 2013년보다 3%p 하락하였지만 78%에 머물러 있음. 아시아-태평양과 글로벌 평균 불법 복제 사용률이 각각 61%, 39%인 것과 비교했을 때 베트남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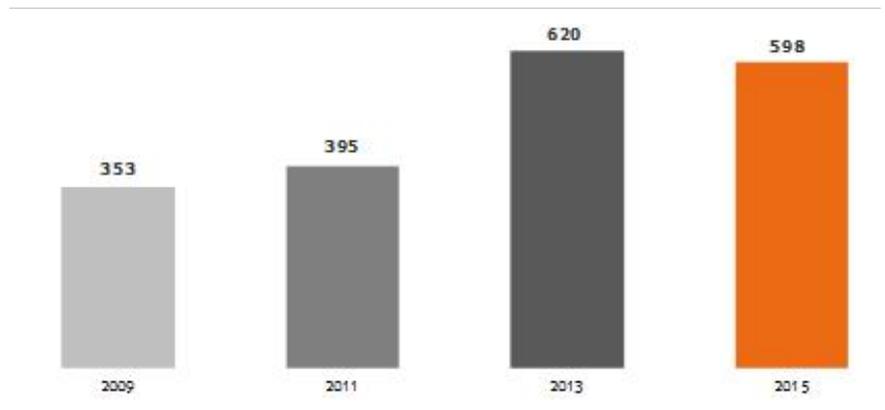
표 2.1 : 베트남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비율

구분	2009	2011	2013	2015
베트남	85%	81%	81%	78%
아시아·태평양	59%	60%	62%	61%
글로벌	43%	42%	43%	39%

출처 : 소프트웨어연합(BSA), BSA Global Software Survey 2016

그림 2.1 : 베트남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시장 가치

(단위: 백만 달러)



출처 : 소프트웨어연합(BSA), BSA Global Software Survey 2016

2) 주요 기업 현황

베트남 소프트웨어 시장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커서 저가 위주의 현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전체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음

FPT Software, 베트남 IT 기업 TOP 40 리스트 중 1위 차지

베트남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FPT Software는 2015년 베트남 정보통신 소프트웨어협회(VINANA)가 발표한 IT 기업 TOP 40 리스트 중에서 1위를 기록함. FPT Software는 TOP 40개 기업들의 전체 매출 중에서 22%를 차지함

FPT Software는 2015년 3월 독일의 에너지 기업인 E.ON과 1억 달러 상당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으며, 2014년 유럽 시장에서 올린 매출 규모는 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7% 상승함

Orient Software, 베트남 ICT 기업 TOP 50 선발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기업인 Orient Software는 2016년 베트남 정보통신소프트웨어협회(VINANA)가 주최하는 '2016 베트남 ICT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TOP 50'에 선발됨

이번 TOP 50 선발은 정보통신소프트웨어협회가 세 번째로 주최하는 선발이었으며, 시장과 고객, 기술과 제품, 리더십과 경영 관리 등 총 6가지의 항목들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기업을 선발함

Orient Software는 총 세 번의 선발 기회 중 이번을 계기로 두 번째 선발의 영광을 누림

표 2.2 : FPT Software & Orient Software

기업명	 FPT Software	 Orient Software
홈페이지	www.fpt-software.com	www.orientsoftware.net
설립	1999년 하노이	2005년 호찌민
CEO	호앙 비엣 안 (Hoang Viet Anh)	농 응우웬(Nhung Nguyen)
업종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출처 : 각 사 홈페이지

2. 인터넷서비스

1) 시장 동향 및 전망

2017년 베트남 인터넷 이용자 수 5,000만 명 돌파

시장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16년 기준 4,820만 명을 기록함. 스마트폰 보급량 증가와 정부 정책에 따른 브로드밴드 확대 등으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 수는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17년 5,000만 명을 돌파하여 2021년에 6,57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 자국 웹사이트 선호도 높은 편

베트남은 자국의 웹사이트가 발달된 편이라 자국의 인터넷서비스와 글로벌 인터넷서비스가 균형 있게 형성되어 있음

2014년 이전까지는 Google을 비롯한 글로벌 웹사이트들이 검색엔진 서비스를 주도하였으나, 2014년 러시아와 베트남의 합작 검색엔진인 Coc Coc이 주요 웹사이트로 부상함. Coc Coc은 베트남어로 검색할 때 Google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강점이 있음

표 2.3 : 베트남 TOP 10 웹사이트(2017.02)

순위	사이트명	유형
1	coccoc.com	검색엔진
2	Daikynghuyenvn.com	뉴스
3	Google.com.vn	검색엔진
4	Youtube.com	동영상 공유
5	Google.com	검색엔진
6	Facebook.com	소셜 미디어
7	Webtretho.com	검색엔진
8	Askcom.me	검색엔진
9	Zing.vn	뉴스
10	Mangvieclam.com	채용정보

출처 : Alexa

2) 주요 기업 현황

Coc Coc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의 지위를 위협할 수준으로 성장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크롬 브라우저의 3자 구도로 구성되었던 기존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2013년 베트남 웹 브라우저인 Coc Coc 브라우저는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3대 웹 브라우저 중 하나로 선정됨

그 이후로 Coc Coc 브라우저는 베트남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브라우저로 꾸준히 성장함. 2015년 기준 일평균 Coc Coc 브라우저 사용자 수는 419만 명에 달하며, 이는 기존 1위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있던 크롬 브라우저의 일일 사용자 수 595만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임

Coc Coc 브라우저는 컴퓨터 CPU를 많이 소비하는 크롬 브라우저와는 달리 보다 빠른 속도로 고객들이 원하는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또한 베트남어로 작성된 문서의 맞춤법 오류 검사도 90%의 정확성으로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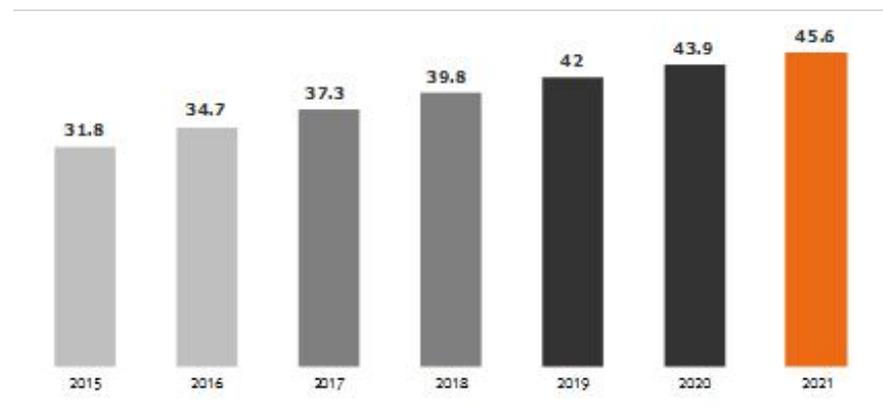
베트남 내 페이스북 사용자 수 지속적으로 증가

시장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2016년 베트남의 페이스북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300만 명이 늘어나 약 3,470만 명으로 집계됨

베트남은 인터넷 보급률 및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페이스북을 비롯하여 SNS 사용자 수 또한 덩달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베트남의 페이스북 사용자 수는 2021년에 들어서 4,56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그림 2.2 : 베트남 페이스북 가입자 증가 추세 (단위: 백만 명)



출처 : Statista

3. 통신

1) 시장 동향 및 전망

이동통신

베트남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인구수를 훨씬 웃도는 수준임. 글로벌 소셜미디어 컨설팅 업체인 위아소셜(We Are Social)사가 2016년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베트남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베트남 인구(약 9,395만 명)의 152%에 해당하는 1억 4,30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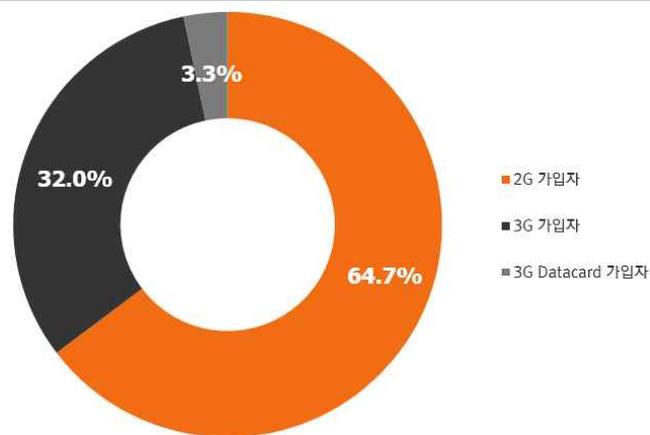
또한 베트남 전기통신국(VNTA)이 2016년 9월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억 2,972만 명으로 이 역시 베트남 인구의 139% 수준으로 전체 인구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임

베트남 이동통신 가입자 수에 대한 통계 자료 간 편차가 존재함. 이는 해당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선불 가입자와 다수의 SIM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 수까지 통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2016년 9월 기준 베트남의 3G 및 3G Datacard 가입자는 약 4,578만 9,000 명임. 하지만 이는 2G 가입자 수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에 불과함. 베트남의 3G 시장 확대가 더딘 이유는 높은 요금과 낮은 성능 때문임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3G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한 후 신속한 수익 창출을 위해 3G 서비스를 프리미엄 이동통신 상품으로 홍보한 바 있으나, 광범위한 가입자층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3G 요금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관측됨

그림 2.3 : 베트남 이동통신서비스별 가입자현황(2016년 9월 기준)



출처 : 베트남 전기통신국(VNTA), B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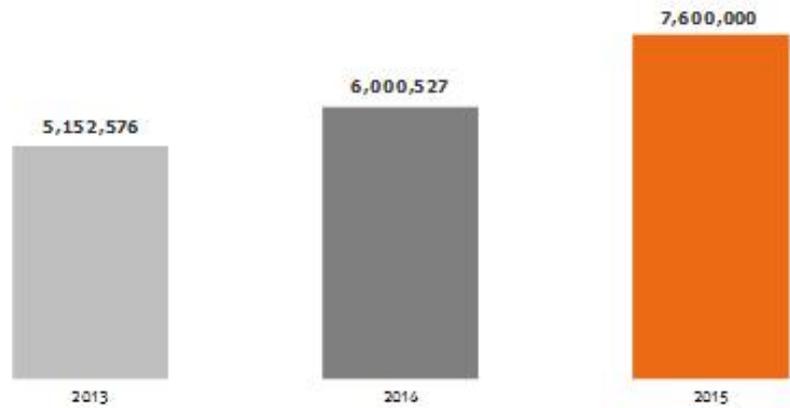
브로드밴드

베트남의 주요 브로드밴드 사업자로는 VNPT, FPT Telecom, Viettel Telecom 등이 있음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중산층 확대에 힘입어 베트남의 브로드밴드 시장은 한 동안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급증하면서 전통적인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수요가 점차 줄고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국제전기통신연합 ITU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2013년 기준으로 약 515만 명이었음. 그 후 가입자 수가 점차 늘어나 2014, 2015년에는 각각 약 600만 명, 760만 명으로 집계됨

그림 2.4 : 베트남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변화 추이 (단위: 명)



출처 : ITU

5G

베트남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악화, 이동통신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새로운 이동통신 기술의 도입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늦어짐

전 세계적으로 5G 기술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3G가 상용화되어있는 베트남은 3G에서 바로 5G를 도입하는 방법이 아니라 4G 상용화를 선행하여 향후 5G 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음

베트남은 2016년 10월 기준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4G 라이선스 발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7년에야 비로소 전국적으로 4G가 상용화 될 것으로 보임. 4G 상용화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것으로 보아 베트남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향후 5G에 대한 투자도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2) 주요 기업 현황

2017년 VNPT, 4G 네트워크 확대 노력에 박차

2017년 전국적으로 4G 상용화가 본격화된 가운데, 베트남의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인 VNPT는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4G 네트워크 확대 노력에 박차를 가함

VNPT는 2016년 1월 메콩 강 삼각주에 위치한 푸꾸옥(Phu Quoc) 섬을 비롯하여 호찌민시티의 일부 구역에서 4G 기술 파일럿 테스트를 마쳤으며, 전송 속도가 현재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케이블 서비스 속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힘

VNPT는 2017년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4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1,000개의 4G 기지국을 운영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도시의 모든 지역과 전국 85%의 지역에 4G 서비스를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6년 Viettel, 4G 기지국 확대

베트남 이동통신 시장의 선두주자 Viettel은 2016년 정보통신부의 4G 라이선스 발급 승인이 이루어진 직후부터 LTE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지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Viettel은 2016년 붕타우(Vung Tau City), 바리아(Ba Ria City), 롱딘(Long Dien)의 주거 지역에 200여 개에 달하는 4G 기지국을 설립하였음

표 2.4 : VNPT & Viettel

기업명	 VNPT, 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Group	 Viettel
14'기준 3G 시장점유율	22% (2위)	52.5% (1위)
홈페이지	www.vnpt.vn	www.viettelecom.vn
설립	2006년	2004년, 하노이
CEO	부 뚜언 흥	응우옌 만 흥

출처 : 각 사 홈페이지

4. 디지털콘텐츠

1) 시장 동향 및 전망

게임시장, 전체 디지털콘텐츠 시장 중 큰 비중 차지

Thanh Nien News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베트남의 게임 시장은 전체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37%를 차지하여 5억 3,54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이룸

또한 베트남의 모바일 플랫폼 제공업자 Appota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는 어플리케이션은 게임 앱이며, 소셜미디어와 음악이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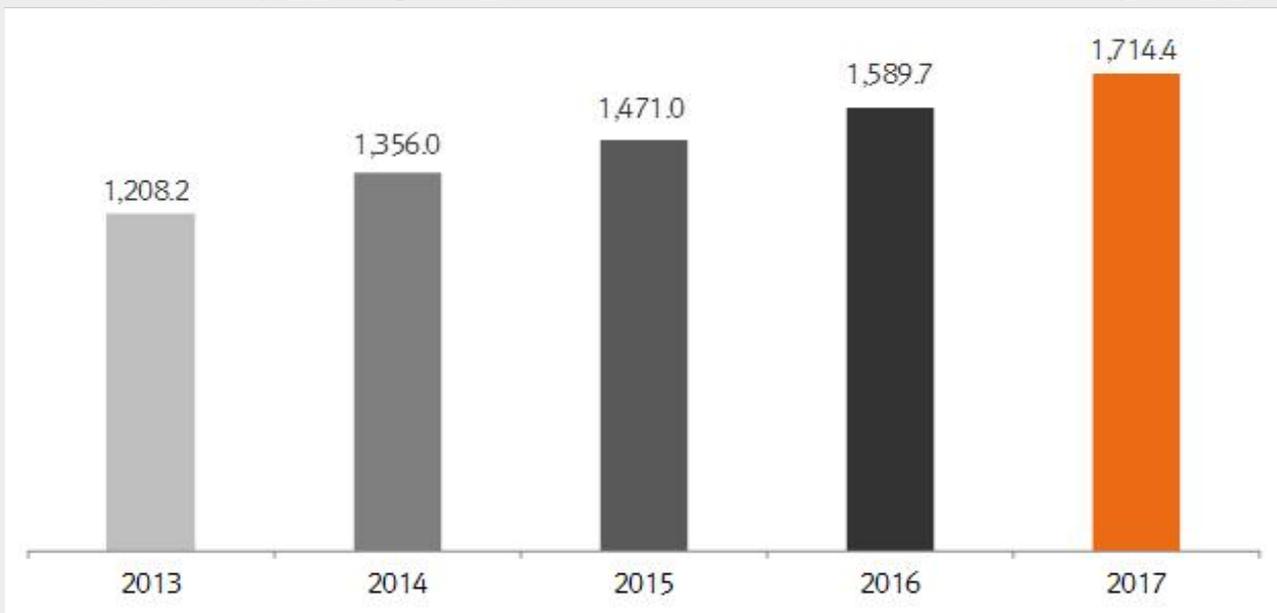
2017년, 베트남 디지털콘텐츠 시장 규모 17억 달러 돌파 전망

영국 다국적 컨설팅 기업인 PWC가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디지털콘텐츠 시장 규모는 2017년에 17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

각 항목별로 영화 시장은 1억 1,130만 달러, 음악 시장은 4,600만 달러, 방송 시장은 9억 7,880만 달러, 게임 시장은 5억 3,540만 달러, 홈비디오 시장은 4,200만 달러일 것으로 예측됨

그림 2.5 : 베트남 디지털콘텐츠 시장 규모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출처 : PWC

2) 주요 기업 현황

Apple, 베트남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Apple Music’ 출시

2015년 6월, Apple은 베트남에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Apple Music’을 출시함. Apple Music의 월 이용료는 2.99달러로 이는 미국에서 제공하는 가격의 1/3에 못 미치는 정도임

베트남에는 약 150여 개에 달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으나, 소비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7개의 주요 사이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저작권에 위배되는 무료 사이트임

베트남 음악 업계는 정당한 저작권료를 기반으로 한 Apple의 유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인식과 습관을 바꾸어 정당한 디지털 음악 소비문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함

그림 2.6 : 베트남에 출시된 Apple Music



출처 : Saigoneer

VNG	
홈페이지	www.vng.com.vn
설립	2004년 9월 9일, 호찌민
CEO	르 홍 민
업종	디지털 콘텐츠

VNG, 미얀마서 메시징 플랫폼 Zalo 이용자 수 200만 돌파

베트남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주요 기업인 VNG는 2012년 자사의 모바일 채팅 플랫폼 Zalo를 출시한 이래로 2016년 10월 미얀마에서 이용자 수 200만 명을 돌파함

Zalo는 미얀마의 인터넷 인프라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는 강점으로 라인, 카카오톡, 위챗 등 경쟁한 글로벌 메시징 플랫폼들과 경쟁할 수 있었음

5. 방송스마트미디어

1) 시장 동향 및 전망

방송콘텐츠

베트남 방송콘텐츠 시장은 정부 및 공산당이 언론법에 의거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해외 프로그램을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을 사전에 검열한 후 방영함

최근 수년 간 베트남 내 한국, 중국 등 외산 방송콘텐츠의 방송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2015년 7월에는 베트남 정보통신부가 각 방송국에 한국 드라마 등 외국 콘텐츠 방송 비중을 줄여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지난 10여 년간 베트남 TV 채널을 선도하던 한국 드라마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인도, 태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방송 콘텐츠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점유율을 높이고 있음

방송

미디어 시장조사기관인 Digital TV Research가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베트남의 TV 보유가구 수는 2,231만 8,000가구로 이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임. 베트남 TV 보유가구 수는 2012년 2,128만 1,000가구까지 기록하였고, 적은 폭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표 2.5 : 베트남 유료 TV 방송 가입자 추이 (단위 : 천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위성 TV	887	973	987	1,170	1,228
케이블 TV	150	300	750	993	1,228
IPTV	700	900	975	1,413	2,120

출처 : Digital TV Research 2016

방송통신융합

아시아의 소비 시장을 연구하는 리서치회사 Cimigo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베트남에서 온라인을 통해 비디오를 시청하는 사람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중은 23% 수준임

Cimigo에 따르면, 베트남 내에서 모바일을 통해 비디오를 시청하는 현상은 베트남 온라인 미디어 소비 시장에서 향후에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 특히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시청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2) 주요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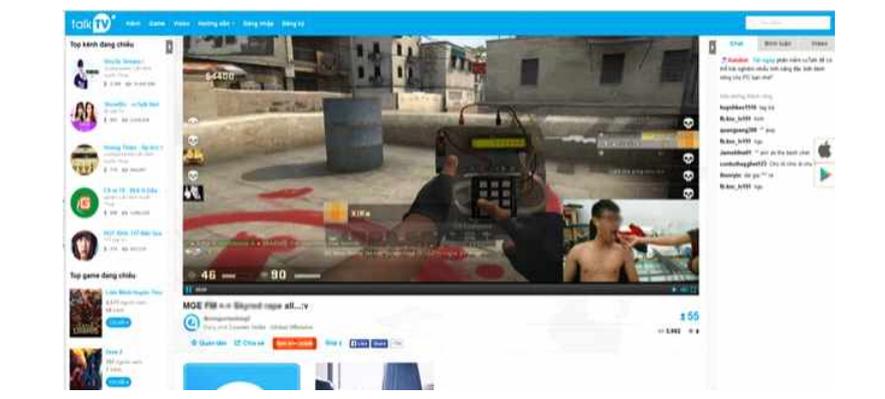
TalkTV, 베트남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 선도

베트남 최대의 인터넷 콘텐츠 업체인 VNG가 2014년 출시한 TalkTV는 출시 이후부터 게임 및 아이돌 공연 콘텐츠로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베트남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은 페이스북, 유튜브와 더불어 아마존의 Twitch, 네이버의 Vapp, KJ의 WSTV 등 수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음. TalkTV는 이러한 경쟁 하에 라이브 스트리밍 게임 분야에서 ‘Vietnamese Star’로 불리며 고품질 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음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2016년 기준 600만 명의 이용자 이상을 보유한 TalkTV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비디오 라이브 스트리밍 업체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고 전망함

그림 2.7 : 베트남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TalkTV



출처 : 자사 홈페이지

Harmonic



홈페이지	www.harmonicinc.com
설립	1988년, 캘리포니아
CEO	Patrick Harshman
업종	방송 미디어 및 영상 송출 인프라

VTV(Vietnam Television), 라이브 OTT 서비스를 위해 Harmonic사의 비디오 인프라 사용

2016년 베트남의 방송사 VTV는 프리미엄 스포츠 콘텐츠 등 더욱 나은 비디오 콘텐츠를 라이브 OTT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영상 인프라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Harmonic의 비디오 인프라를 사용하겠다고 밝힘

VTV는 이번을 계기로 IP 비디오 콘텐츠들의 지연시간을 단축하여 보다 빠르고 나은 화질의 비디오 영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 OTT TV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됨

6. 정보보호

1) 시장 동향 및 전망

베트남, 사이버 범죄 및 정보보호 취약

미국의 사이버보안 전문 업체 CrowdStrike에 따르면, 베트남의 이동 저장 장치를 통한 멀웨어 감염 비중은 세계 1위 수준이며, 전체 PC 사용자의 39.95%가 사이버 공간 상에서 멀웨어 감염에 노출되어 있음

베트남 공공보안부(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산하 사이버 보안 부서에 따르면, 2015년 600여 개의 해커 집단이 베트남의 포털 사이트를 공격하였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공격한 것으로 밝혀짐

베트남 컴퓨터 비상 대책 팀(VNCERT, Vietnam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에 따르면, 2015년 9월까지 88개의 국영 플랫폼을 포함한 총 1만 8,085개의 베트남 웹 사이트가 악의적인 소프트웨어에 감염된 바 있다고 밝혀짐

2016년, 베트남 정보보호 관련 법률 수준 강화

2016년 기준 베트남의 데이터 보호 법률 수준은 국제 기준과 현 OECD 국가들에 준하는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하였음. 베트남의 데이터 보호 법률은 스팸 감지 및 차단, 컴퓨터 바이러스 및 사이버 공격 예방, 사이버 공간 내 정보 변질 보호를 구제하는 메커니즘을 갖추

그러나 기존 베트남의 데이터 보호 법률은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 혹은 단체의 정보가 오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음. 그 결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 집행에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여 왔음

이에 베트남 정부는 2016년 7월 사이버 정보보안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 및 시행한 바 있음. 사이버 정보보안에 관한 법률은 베트남 최초로 텔레콤과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 상에서 교환되는 모든 사이버 정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구체적인 법률임

새로운 법률 시행과 더불어 베트남은 기존의 형사법을 개정하여 사이버 범죄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형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발의됨. 그러나 이는 법률 조항에 많은 오류들이 발견되어 국회의 표결에 의해 잠정적으로 시행이 연기된 상태임

2) 주요 기업 현황

베트남의 정보보호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시장은 Hitachi, Fujitsu 등 일본 업체와 Symantec, Kaspersky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자국의 정보보호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함

BKAV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2년 연속 베트남인이 선호하는 제품 TOP 10 달성

2016년 9월, 베트남의 대표적인 정보보호 기업인 BKAV는 ‘베트남 소비자 보호 및 기준 협회’ 주최의 제품 선호도 평가에서 2년 연속 TOP 10을 달성함

베트남 정보보호협회 주관 설문 조사에 따르면, BKAV의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는 5년 연속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프트웨어로 평가되어 왔음. 한편 BKAV의 고객 수는 2016년 기준 1,000만 명에 달함

그림 2.8 : BKAV, 소비자 제품 선호도 평가 TOP 10 달성



출처 : vietnamnews.vn

베트남 해커 집단, 사이버 보안 업체 Athena 공격

2016년 8월 사이버 보안 업체인 Athena는 ‘Ba Team’으로 불리는 베트남 해커 집단에게 사이버 공격을 당함. Ba Team은 사이버 공격 이후 자신들의 공격 행위를 해커들의 커뮤니티인 Zone-h 사이트에 게재하여 업적을 과시함

해커 집단은 Athena의 웹사이트에 유튜브 비디오를 게시하고, 다른 사이버 보안 센터와 업체들을 타겟으로 사이버 추가 공격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김

베트남의 주요 사이버 보안 업체 BKAV에 따르면 베트남 웹 사이트의 40%가 사이버 보안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매달 300여 개의 웹사이트가 공격을 받는 만큼 각 기업 및 기관의 각별한 사이버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함

7. 클라우드 컴퓨팅

1) 시장 동향 및 전망

베트남,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수준 미약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낮은 브로드밴드 품질과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호 인식 부족이라는 고질적 문제로 인해 클라우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베트남 현지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IBM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VMware Cloud Index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의 41%가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을 채택하길 희망한다고 응답했음.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2015년 10월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별도의 정책을 발표하지 않음

베트남, 2015 클라우드 컴퓨팅 순위 24개국 중 최하위

2016년 소프트웨어 연합 BSA에 따르면, 베트남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안, 사이버 범죄 등 7가지 항목으로 평가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순위에서 2015년 조사 대상 24개국 중 24위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머물렀음

베트남은 전자상거래와 전자서명에 대한 법률은 있지만,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큰 감점을 받음. 또한 정부의 엄격한 콘텐츠 검열과 낮은 브로드밴드 보급률 및 무역 장벽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써 작용하여 감점의 큰 원인이 됨

베트남의 종합 점수는 2013년에 비해 약간 상승하였지만, 여러 법률, 인프라 등의 종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클라우드 컴퓨팅 순위에서 최하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표 2.6 : 베트남 클라우드 컴퓨팅 순위

항목	점수	순위
데이터 프라이버시	5.7/10	17/24
보안	2.8/10	21/24
사이버 범죄	5.6/10	22/24
지적 재산권	9.6/20	23/24
산업 기준 및 국제 규율 준수	7.2/10	20/24
자유 무역 촉진	1.4/10	23/24
IT 준비도 및 브로드밴드 보급	11.4/30	23/24
합계	43.66/100	24/24

출처 : 소프트웨어연합 BSA (2016 BSA Global Cloud Computing Scorecard)

2) 주요 기업 현황

FPT,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도입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2017년 1월, 베트남의 다국적 IT 기업인 FPT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도입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

FPT는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베트남에서 기업의 운영 시스템 전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도입하는 첫 번째 회사이자 가장 큰 규모의 회사가 될 것임.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은 FPT의 기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맥락의 첫 단계로 FPT는 One Drive와 Skype를 도입하여 비즈니스 운영 환경 최적화와 동시에 자사의 모든 시스템과 데이터를 클라우드화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Office 365를 사용함

또한 향후 FPT는 베트남의 고객들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Office 365와 Microsoft Azure를 비롯한 클라우드 기술을 크게 발전시킬 계획임

그림 2.9 : FPT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도입 파트너십



출처 : vnbtimes.com

IBM, 베트남에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설립

2016년 10월, IBM은 하노이와 호찌민시티에 있는 IBM 오피스에 첫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표함. 이번 데이터 센터 설립은 기업들이 기술 인프라 및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시험해 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는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여 은행 업무, 원거리 통신, 정부 행정, 교육, IT 호스팅 서비스 등 많은 산업 분야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8. 사물인터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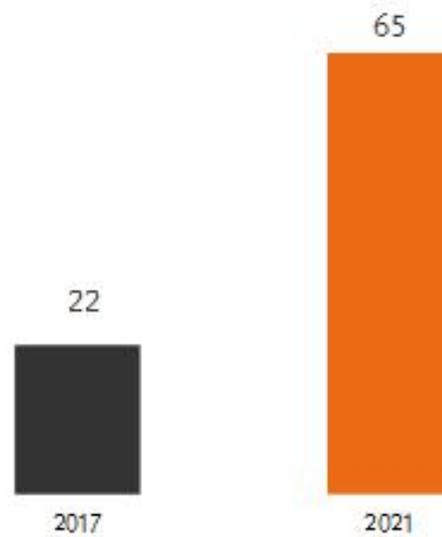
1) 시장 동향 및 전망

2017년 베트남 스마트홈 시장 규모 2,200만 달러 전망

Statista에 따르면, 2017년 베트남의 스마트홈 시장 규모는 2,200만 달러임. 이는 30.4%의 연평균 성장률로 2021년에 이르러서는 6,5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 2.10 : 베트남 스마트홈 시장규모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출처 : Statista

베트남, 사물인터넷 산업 태동 단계

2008년 베트남에서 첫 사물인터넷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 2016년 기준 약 30만 개의 사물인터넷 제품이 출시됨

2008년 초 베트남에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하노이를 포함한 5개의 도시들이 스스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함. 특히 최근 Hoa Lac 사물인터넷 연구실 개설은 베트남의 사물인터넷 환경에 대한 관심을 잘 드러냄

또한 베트남은 2020년까지 달성할 산업국가화 목표에 따라 IT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짐.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ICT 분야에 1억 1,160만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공표함. 이러한 추세는 향후 사물인터넷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됨

2) 주요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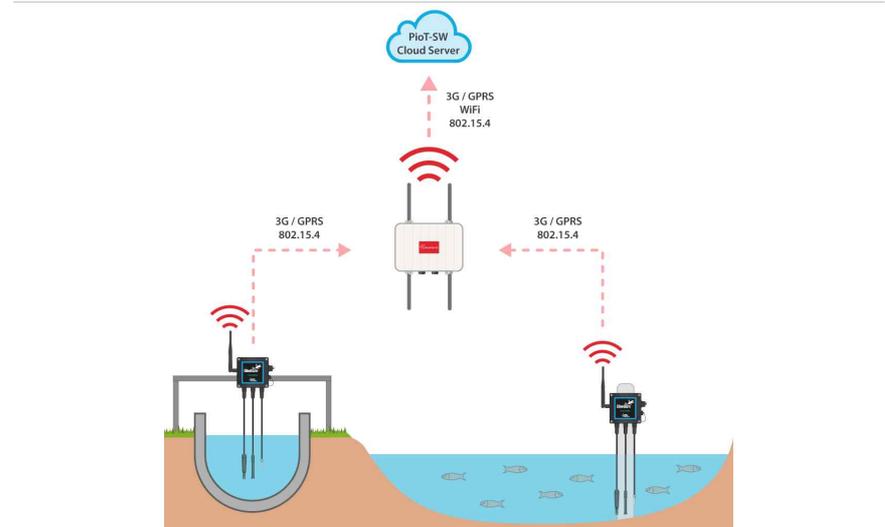
PHA Distribution, 어류 양식장에 IoT 기술 도입

베트남 사물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을 선도하는 PHA Distribution은 2016년 메콩강 인근 탄빈(thanh binh) 지역에 위치한 어류 양식장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함

PHA Distribution은 양식장에 리베리움(Libelium)사의 와스모트 플러그앤센스(Waspote Plug & Sense) 센서 플랫폼을 이용함. 와스모트 플러그앤센스는 디자인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조작성 간편하며 유지비용이 타제품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음

PHA Distribution은 이로써 실시간으로 양식장의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어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어류의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량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됨

그림 2.11 : 어류 양식장에 사용된 와스모트 플러그앤센스 작동 예시



출처 : libelium.com

Honeywell, 베트남에 스마트 홈 솔루션 도입

자동제어장치 전문회사 허니웰(Honeywell)은 2016년 베트남 내 중산층의 증가 및 지속가능한 도시화 정책 등 거시적 트렌드를 주요 기회로 삼아 자사의 스마트 홈 솔루션으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힘

이를 위해 허니웰은 베트남의 주요 투자 관리 회사인 VinaCapital과 협력관계를 맺음. VinaCapital은 자사의 부동산 프로젝트에 허니웰의 스마트 홈 솔루션을 도입할 계획임

9. IT스마트융합

1) 시장 동향 및 전망

인공지능

베트남의 인공지능 시장은 아직 태동 단계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AI 시장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회의 장으로 여긴다.

동남아시아의 뉴스 및 지식 플랫폼인 Dealstreetasia에 따르면, 베트남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은 지나치게 인공지능의 기술적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소비자 및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베트남 스타트업들이 단순히 인공지능의 기술적 측면을 넘어서 인공지능 시장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AI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한 산업과 통합하는 일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3D 프린팅

베트남의 온라인 뉴스 Talkvietnam에 따르면, 베트남의 3D 프린팅 기술은 아직 여러 분야에서 보편화 되어있지 않으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베트남 시장에서는 3D 프린터가 복잡한 기술적 요소들로 인해 매우 비싼 품목에 속하며, 대부분의 3D 프린터를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수입품에 의존한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 및 산업계는 3D 프린터 기술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 개별화된 제품들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베트남 제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본다.

핀테크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전자상거래 및 정보통신국(VECITA)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매출은 2015년 40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함. 이는 2012년 7억 달러에서 약 5.8배 증가한 수치임

그림 2.12 : 베트남 전자상거래 매출액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출처 : 베트남 전자상거래 및 정보통신국(VECITA) 보고서

또한 2015년 기준 1인당 온라인 구매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하여 160달러로 나타났으며, 전자 상거래 매출이 전체 소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인 것으로 집계됨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장 많이 판매되는 품목은 의류 및 화장품이며, 전자기기, 가정용품, 서적, 문구용품, 화훼, 선물 등이 그 뒤를 이음

표 2.7 : 2015년 베트남 주요 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

NO.	기업명	웹사이트명
1	Recess Co., Ltd	www.lazada.vn
2	Peacetech Solutions JSC	www.chodientu.vn
3	Hotdeal Co., Ltd	www.hotdeal.vn
4	Vietnam Price JSC	www.vatgia.com
5	VCCORP JSC	enbac.com
6	Sen Do Technology JSC	www.sendo.vn
7	Cung Mua Co., Ltd	www.cungmua.com
8	VinCommerce Co., Ltd	www adayroi.com

※순서는 기업규모 및 매출액과 무관함

출처 : 베트남 전자상거래 및 정보통신국(VECITA) 보고서

2) 주요 기업 현황

Hoa Phat Furniture, 가구 생산에 3D 프린팅 기술 이용

베트남 최대의 가구 제조업체인 Hoa Phat Furniture JSC는 2016년 3D 프린팅 기술에 투자하여 가구 디자인 및 생산에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함

3D 프린팅 기술은 많은 가구 부품의 프로토타입을 다양한 디자인으로 일관된 품질로 제조하여 가구 생산 효율에 크게 기여함

그림 2.13 : 3D 프린터로 제작한 Hoa Phat Furniture의 부품



출처 : hoaphat.com.vn

M_Services JSC, 모바일 결제시스템 서비스 개발 부문에 외국 자본 투자 유치

베트남 스타트업 기업인 M_Services는 2016년 3월 자사의 모바일 결제시스템 MoMo의 서비스 개발 부문에 외국 자본 투자 유치를 성공함. M_Services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영국 투자은행인 Standard Chartered로부터 2,500만 달러를,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로부터 300만 달러를 투자 받게 됨

이번 투자를 계기로 M_Services는 자사의 e-Payment 기능과 부가 혜택을 늘리고 서비스 가능 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2.14 : 모바일 결제시스템 MoMo의 투자 협약 발표회



출처 : momo.vn

10. 전파위성

1) 시장 동향 및 전망

베트남 정보통신부, 주파수 관리 역할 담당

베트남의 주파수 자원 관리는 정보통신부(MI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정보통신부의 집행기구 산하 주파수관리청(RFD)이 실무를 담당함

주파수관리청은 주파수 관리 및 계획 수립, 주파수 자원과 관련된 제반 법률 문제 처리, 주파수 할당 및 사업 라이선스 할당, 주파수 이용료 징수, 위성 궤도 위치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함

베트남, 2개의 통신위성 발사 및 운영 중

베트남 우편통신그룹(VNPT, 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Group)의 투자로 베트남은 2008년 4월 첫 통신위성인 VINASAT-1을 발사한 이후 2012년 5월 VINASAT-2를 추가로 발사함

베트남, 2022년까지 4개의 추가 인공위성 발사 계획

베트남 국립 우주센터(VNSC, Vietnam National Satellite Center)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2년까지 4개의 인공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계획임. 4개의 인공위성 중 LOTUSat-1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베트남 엔지니어들에 의해 개발됨

현재 베트남의 원격탐사용 인공위성은 2013년 발사된 베트남 과학기술 아카데미(VAST, Vietnam Academy of Science & Technology)의 VNREDSat-1이 유일하며, 환경 변화 모니터링을 위해 인공위성이 제공하는 이미지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임

추가로 발사되는 인공위성 중 NanoDragon과 MicroDragon은 2018년에, LOTUSat-1과 LOTUSat-2는 각각 2019년과 2020~2021년 중 발사될 예정임

새로이 발사되는 베트남의 인공위성이 위성 궤도 위치와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공위성이 기존 위성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 나라들과 주파수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함

2) 주요 기업 현황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2016년 10월 Viettel, VinaPhone, MobiFone, Gmobile 을 대상으로 총 1,800Mhz 대역의 동일한 주파수를 활용하는 4G 서비스 라이선스를 발급함

이는 당초 2017년 상반기로 예상되었던 것으로, 4G 서비스 라이선스 발급이 앞당겨짐에 따라 4G 상용화 시기도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Viettel, 베트남 최초로 4G 서비스 시험사업 착수

베트남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 Viettel은 2015년 12월 12일 바리아-붕따우(Ba Ria-Vung Tau) 지역에서 베트남 최초로 4G 시험사업을 실시함. 해당 시험 사업에서 4G 이동통신의 평균 전송속도는 3G 이동통신의 7배 수준인 40~80Mb/s이며, 일부 지점에서는 230Mb/s까지 기록함

그림 2.15 : Viettel의 4G 시험사업



출처 : dantri.com.vn

11. 디바이스

1) 시장 동향 및 전망

2017년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규모 4,000만 달러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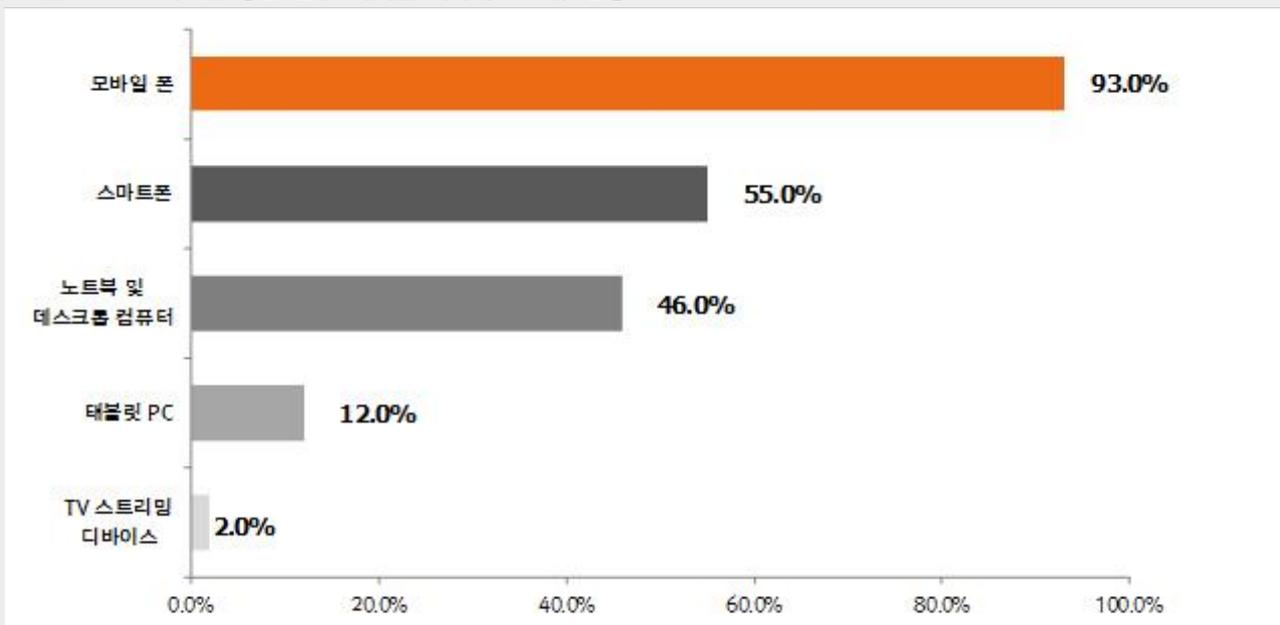
시장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베트남의 피트니스 산업은 2017년 기준으로 6,9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임. 피트니스 산업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4,000만 달러로 예상됨

베트남 성인 인구 중 모바일 폰 보유 비중 93%, 스마트폰 55%

글로벌 소셜미디어 컨설팅 업체인 We Are Social이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 시장과 마찬가지로 PC 보급화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모바일 트렌드에 진입함

이에 따라 성인 인구 중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인구의 비중은 2016년 1월 기준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비율인 46%를 기록함. 반면 성인 인구의 93%가 모바일 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55%가 스마트 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됨

그림 2.16 : 베트남 성인 인구 디지털 디바이스 보유 현황



출처 : We Are Social, January 2016

2) 주요 기업 현황

삼성,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베트남의 시장조사기관 Q&Me Vietnam이 2016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노트7의 배터리 결함 문제와 리콜 사태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에서 여전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 2016년 기준 베트남 내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32%이며, 2위인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23%임

베트남, 고품질 제품 선호 高

베트남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화웨이, 비보, 샤오미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 브랜드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고품질의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베트남 여성들이 삼성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선호하며, 여성 중 40%가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점이 베트남에서 인기를 끄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힘

베트남 스마트폰 브랜드 Mobiistar,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

베트남 스마트폰 브랜드인 Mobiistar는 2017년 1월 5.5 인치 HD 스크린을 탑재한 신제품 Prime X1과 Prime X를 출시하며 자국 스마트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음

Mobiistar는 400만 동(약 175달러)도 채 되지 않는 매우 저가의 스마트폰을 출시하였지만, 화웨이, 비보, 오포 등 다양한 저가의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이미 베트남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을 겪고 있음. 이들 브랜드의 매출은 전체 스마트폰 매출의 40% 수준임

그림 2.17 : 새로이 출시된 Mobiistar의 신제품 Prime X1



출처 : Mobiis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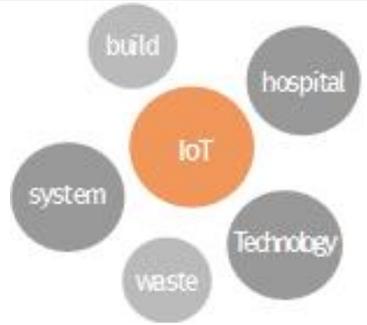
III. 베트남 유망제품 진출전략

1. 유망품목 도출
2. 유망제품 선정
3. 유망제품 유통구조
4. 현지 진출 기업 사례
5. 유망제품 홍보 방법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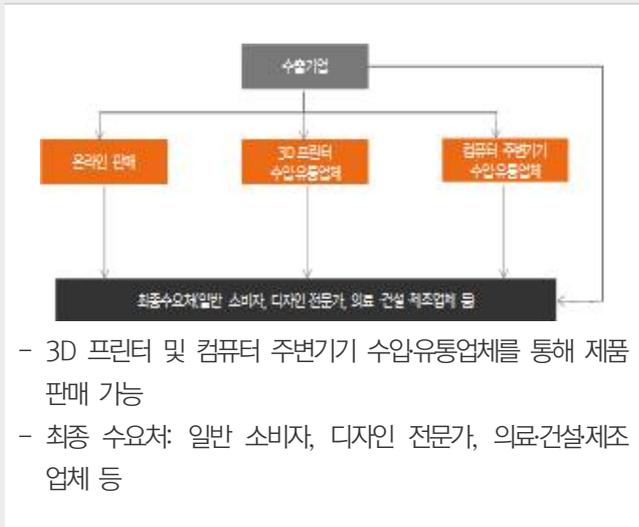
※ 유망품목 도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유망품목 선정 - 'IT스마트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사유 1. 베트남 의료 시장 규모 증가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베트남 의료 시장 규모 125억 달러 전망,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수요 증대로 병원의 의료기기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측 - 선정 사유 2. 베트남 건설 시장 호황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인프라 사업 및 공기업 민영화로 2021년까지 171억 달러로 증가 전망 - 선정 사유 3. 베트남, 3D 프린팅 기술 수입 의존도 높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의 낮은 기술수준으로 인해 자국 제작보다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음

※ 유망제품 선정

- 3D 스캐너
 - 3D 프린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실제 형상을 3D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임
- 3D CAD
 - 디자인 설계 및 개발에 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2D가 아닌 3D 형태의 디자인을 제공함
- 3D 프린터
 - 액체 또는 분말 형태의 재료를 가공하거나 적층 방식으로 쌓아 올려 3D 형태로 제조하는 역할을 함

※ 유망제품 유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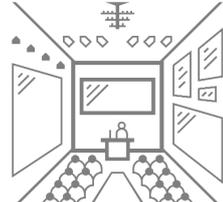
※ 현지 진출 기업 사례

- 한국3D프린팅협회, 베트남 한인학교에 3D 프린팅 교육 실시
- 인텔리코리아, '캐디안 3D' 베트남에 수출

※ 유망제품 홍보 방법



- 클라우드 펀딩 참여
- 베트남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 Fundstart, Betado, Firststep



'3D Print Fiesta 2017' 참가

1. 유망품목 도출

선정 사유 1. 베트남 의료 시장 규모 증가 전망

BMI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베트남 의료 시장 규모는 119억 달러임.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0.1% 상승한 125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함. 베트남의 빠른 경제 성장에 힘입어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됨에 따라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병원의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하여 의료기기 제작에 사용되는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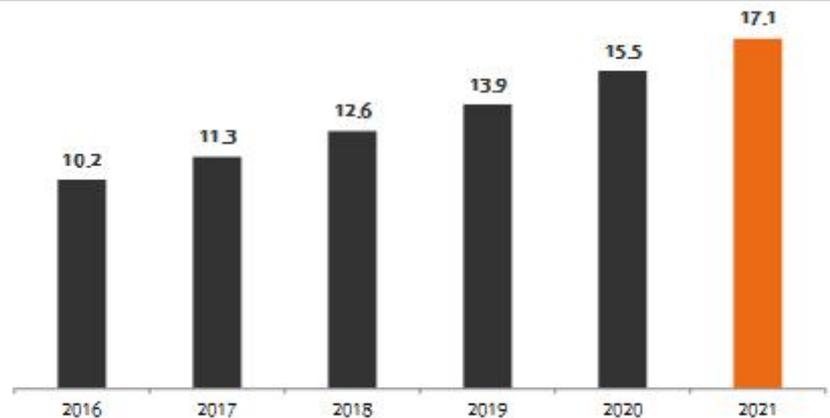
선정 사유 2. 베트남 건설 시장 호황 예상

영국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베트남의 교통 및 전력 인프라 사업과 공기업 민영화로 인해 베트남 건설 시장은 6.3%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함. 베트남 정부는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임

2016년 BMI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베트남 건설 및 인프라 시장 규모는 10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1년까지 171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함

그림 3.1 : 베트남 건설 및 인프라 시장 규모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출처 : BMI

선정 사유 3. 베트남, 3D 프린팅 기술 수입 의존도 높아

베트남의 경우, 아직 3D 프린팅 기술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은 초기 단계임. 또한, 3D 프린터는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주로 자국에서 생산하기보다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베트남 업계는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했을 때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제조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함



2. 유망제품 선정

3D 스캐너

- ① 3D 프린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실제 형상을 3D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임
- ②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을 복원하거나 제품 품질 관리에 사용 가능함



[3D 스캐너]

- 현지 기술력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
- 현지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제품
- 현지 진출 경쟁기업의 제품 경쟁력이 낮은 제품

3D CAD

- ① 디자인 설계 및 개발에 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2D가 아닌 3D 형태의 디자인을 제공함
- ② 3D 디자인을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의사 표현 및 전달이 가능함



[3D CAD]

- 현지 기술력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
- 현지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제품
- 현지 진출 경쟁기업의 제품 경쟁력이 낮은 제품

3D 프린터

- ① 액체 또는 분말 형태의 재료를 가공하거나 적층 방식으로 쌓아 올려 3D 형태로 제조하는 역할을 함



[3D 프린터]

- 현지 기술력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
- 현지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제품
- 현지 진출 경쟁기업의 제품 경쟁력이 낮은 제품

3. 유망제품 유통구조

베트남 내 3D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해당 시장의 유통 구조를 파악함. 베트남 3D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를 유통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①온라인 판매, ②3D 프린터 전문 수입유통업체, ③컴퓨터 주변기기 수입유통업체가 있으며, 이외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방식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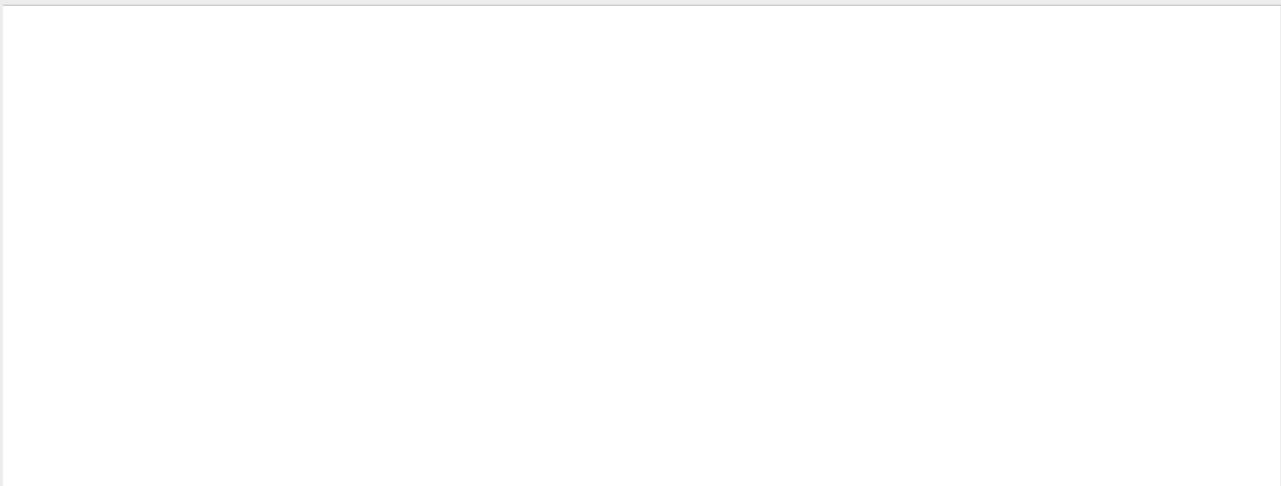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베트남 B2B 혹은 B2C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

3D 프린터 전문 수입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현지 시장에 대리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D 프린터 유통업체는 3D CAD와 같은 소프트웨어도 함께 취급하는 것으로 파악됨. 베트남은 3D 프린터 개발 기술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주요 현지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컴퓨터 주변기기 수입유통업체는 주로 3D 프린터, 3D 스캐너와 같이 하드웨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3D CAD 소프트웨어는 별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3D 프린터 및 스캐너 전문 제조업체에만 해당하는 유통 경로임

최종 수요처는 일반 소비자, 디자인 전문가, 의료·건설·제조업에 종사하는 일반 기업이 있음. 일반 소비자의 경우, 소형의 저가 제품을 주로 선호하는 반면, 디자인 전문가 및 일반 기업은 가격보다 제품 품질 및 스펙이 좋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그림 3.2 : 베트남 3D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 유통 구조



4. 현지 진출 기업 사례

한국3D프린팅협회, 베트남 한인학교에 3D 프린팅 교육 실시

지난 2016년 7월, 한국3D프린팅협회는 최초로 해외 한인학교에서 3D 프린팅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한국3D프린팅협회는 베트남 호치민의 한인 학교와 3D 프린터 기증 및 협약식을 진행함

한국3D프린팅협회는 캐리마, 메이커박스, 트루바인 등과 함께 공동 후원에 나선 예정이며, 특히 트루바인은 베트남 호치민 한인학교에 3D 프린팅 교육을 주최함. 트루바인은 3D 프린팅 교육 과정 및 기자재 준비, 전문교사 파견 등의 교육 활동을 통해 베트남 뿐만 아니라 전세계 3D 프린팅 교육을 확산시키고자 함

인텔리코리아, '캐디안 3D' 베트남에 수출

2015년 9월 기준, 국내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인텔리코리아는 베트남에 3D저작도구인 '캐디안(CADian) 3D'를 수출했다고 전함. 인텔리코리아는 지난 5월부터 중국,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에 공급해왔으며, 이번에는 베트남 Global E&C 기업에 제품을 납품함. 소프트웨어 교육은 동영상 및 원격제어를 통해 진행할 예정임

3D CAD는 전문가도 배우기 쉽지 않은 프로그램이지만, CADian 3D는 초등학교생부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밝힘

그림 3.3 : 인텔리코리아의 캐디안 3D



출처 : 인텔리코리아 홈페이지

5. 유망제품 홍보 방법

클라우드 펀딩 참여

3D 프린터 및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제품 홍보가 어려운 편임. 따라서 스타트업은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여 제품 개발비 확보 및 제품 홍보를 동시에 할 수 있음

베트남 내 스타트업을 위한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는 크게 FundStart, Betado, Firststep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Fundstart는 2014년에 개설된 사이트로 스타트업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베트남인들과 스타트업 간 아이디어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함

표 3.1 : 베트남 내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NO.	기업명	웹사이트명
1	FUNDSTART	Fundstart www.fundstart.vn
2	BETADO	Betado betado.com
3	FIRSTSTEP	Firststep firststep.vn

출처 : 각 사 홈페이지

3D Print Fiesta 2017 담당자 정보

Organizer :

AAL Corp. PTE Ltd,
Ms Vicky Vo

ADDRESS :

Binh Duong Conference &
Exhibition Center

TEL : +84 866861210/20

E-MAIL :

vicky@industrialroadshow.com

Website : www.3dprintfiesta.com

베트남 3D 프린트 페스티벌 참가

베트남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3D Print Fiesta 2017'을 개최할 예정이다. 베트남의 3D Print Fiest 2017은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이벤트임. 이 페스티벌은 2017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크게 ①3D 디자인 및 프린트 컨퍼런스, ②적층가공(AM, Additive Manufacturing) 유저 세션, ③ 3D 프린팅 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2 : 3D Print Fiesta 2017

명칭	3D Print Fiesta 2017	
일시	2017년 06월 07~09일 (3일간)	
최초개최연도	2016년	
주요참가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출처 : industrial road show(industrialroadshow.com)

발행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일자 : 2017.02.

본 보고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 중 문의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2016 NIPA. All Right Reserved. Printed in Korea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0

(TEL) : 043-931-5000